

FAITH &
LIFE

신앙과 삶

11+12

NOV + DEC

2025 vol.38



특집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기독교

사람 사이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청년 일터 이야기 캠퍼스 리더로 산다는 것은

문화로 세상 보기 소비주의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

ISSN 2671-8731

Contents

NOVEMBER + DECEMBER · 2025

시선

정의는 국가에 우선 한다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현실과 그리스도인의 책임 | 신국원 04

특집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기독교

집단 정서의 관점에서 본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기독교적 대응 | 김상덕 06

그들에게는 어느 외국도 모국이요,
어느 모국도 외국입니다 | 서동준 08

구원자와 심판자: 미국의 트럼프즘과 기독교 복음 | 정성철 10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물결 속 경건한 경영인의 사명 | 권오병 12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의 발톱 | 김태황 14

자국 중심주의와 기독교적 공동체 이상
: 갈등인가, 재해석인가 | 강유덕 16

자국 우선주의와 종교적 극우 | 안경상 18

배타적 자국 우선주의와 K-컬처 팬덤의 대항적 액티비즘 | 김태룡 20

사람 사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22

섬김의 자리에서

신앙과 학문이 만나는 자리, 배움이 섬김이 되는 길 | 박지희 26



2025. 11+12월호 | 제38호(통권 253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그 위에 사랑을 김진민	28
캠퍼스 리더로 산다는 것은 황은주	30
청년 일터 이야기	
His Plan 최한나	32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트럼프 시대의 '가버나움'은 어디인가? 강진구	34
미술을 보다	
소비주의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 서성록	36
책을 보다	
카이퍼의 <칼뱅주의 강연>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양성만	38

교회 路

천안아산주님의교회 교육 프로그램 소개

건강한 교회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최윤석	40
소감문 : '확신반'을 통한 주님의 선물 김한나	41

온전한 지성

제2회 기독교고등학생 독서대회 수상작

<호빗>이 선물한 교훈과 지혜 신은수	42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웃음에 관한 생각 이은유	44
말씀과 믿음으로 뿌리내리는 나무가 되자 신예강	46
헨드릭 반 리센의 기독교 세계관(2) 최용준	48

2025년 제4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복음화의 책임	50
------------------------	----

소식

사무국/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정의는 국가에 우선 한다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하와를 지으셨고, 인류는 이런 저런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 왔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번식이 가능하고 언어가 필요하며 언어가 있어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면서 존속하려면 같이 살아야 한다.

그보다 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짐승과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다. 거기다가 범죄한 인간은 미래의 '가능한 상황'에 대한 상상력과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 능력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보다 더 큰 힘을 비축하려 하고, 그것은 다른 집단과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난 가인은 적대적 집단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성을 쌓았다"(창 4:17).

공동체의 단합은 처음에는 가족, 씨족, 종족, 민족 등 혈연에 근거했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역, 언어, 종교, 생업 등 다른 요소들이 같이 혹은 주로 작용하면서 변천해 왔지만, 지금은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공유하고 같은 법, 같은 통치제도로 묶

쳐진 국가가 가장 중요한 단합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언어, 문화, 전통, 인종, 종교 등은 점점 더 부차적이고 국수주의적이 되고 있다. 국가(國歌), 국기, 역사뿐 아니라 심지어 올림픽 등 운동경기를 이용하여 단합을 장려하고, 애국을 미덕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가 기본적인 공동체로 공고화되는 데 크게 작용하는 것은, 자연과학과 그에 근거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사람들의 세계관이 점점 더 물질주의적이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억제되고 승화되었던 인간의 동물적인 욕망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모든 국가는 이익공동체로 고착되고 다른 요소들은 모두 그에 보조적이 되고 있다.

이런 국수주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비판적이지 않다.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반기독교적인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건국에 이바지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할 정도로 애국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물론 최근 미국의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자국

우선주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너무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아 왔고 너무 약하고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는 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속한 국가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했다. 이스라엘은 기나긴 역사를 가진 문명국이었고, 한때는 그 지역의 최강국으로 여러 나라를 지배했으며,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존심과 성경이란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나라가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 온갖 차별과 무시와 억울함을 당했으니, 그런 억울함을 표현하고 항거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리고 당대 유대인들 가운데도 로마 지배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한 움직임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도 특이하게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애국이나 자국 중심적 요소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국가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은 초대교회 교부들에게도 비슷했다. 주전 1세기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의로운 전쟁' 이론을 제시하면서 조국이 침략을 받을 때는 무조건 참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의 전쟁 이론에는 그런 국수주의적인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지만 당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기독교적 로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영원한 로마' 이념을 모두 배격하고 '하나님의 도성'과 '땅위의 도성'을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그만큼 기독교는 처음부터 국가 우상화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이어 상당 기간 지속되던 천주교와 개신교 간의 전쟁이 1555년의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으로 끝났을 때 양측이 합의한 원칙이 '누구의 영토, 그의 종교'(Cuius regio, eius religio)란 것이었다. 한 지역 주민의 종교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군주의 종교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신앙이 군주의

신앙과 다르면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군주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서양 역사에서 국가의 주권이 종교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된 시발점이었다. 그 후 서양 교회는 점점 국가에 예속되어 자국의 비도덕적인 식민지배를 비판하고 반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협조하는 쪽을 택했다. 결국 영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기독교는 오늘의 쇠퇴를 자초하고 말았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상당수는 낙태, 동성애 등을 자국 우선주의보다 훨씬 더 큰 악으로 취급하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엿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랐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박해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열심히 드리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의, 자비, 신의는 버렸다고 질책하셨다(마 23:23). 자국 이익 추구와 애국을 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착취하고 그 주민들을 심각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가중시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성경적이고 어리석은 자해행위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기본적인 양식을 소유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정의는 국가에 우선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현실과 그리스도인의 책임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이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씨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시선>은 이런 현실 앞에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정의가 국가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국의 이익 추구나 애국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강대국의 지배와 착취는 잘못이며 우리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김상덕 교수님은 자국 우선주의를 약한 나라들을 향한 혐오로 규정하고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통해 이를 내어 쫓는 일에 한국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동준 교수님은 자국 중심주의 속에서 복음이 국가나 이념으로 제한되는 현상에 대해 ‘토착화 원리’와 ‘순례자 원리’의 균형을 통해 교회의 보편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성철 교수님은 구원자와 심판자라는 주제로 미국의 트럼프즘과 기독교 복음의 관계를 전합니다. 권오병 교수님은 무너진 사회적 터전을 회복하기 위해 선한 기업 연합과 같이 손해를 감수하며 질서와 배려, 신뢰를 쌓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국내외적으로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김태황 교수님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부당한 힘의 논리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책임을 말합니다. 창조질

서에 역행하는 이익 추구는 지속될 수 없으며, 공감과 공생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과 사회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원리임을 강조합니다. 강유덕 교수님은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다원주의로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가운데 신앙의 영역까지 확산된 두려움과 분열의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에 기초해 국경과 인종, 이념을 넘어 신뢰와 협력, 화해와 평화의 길을 제시해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연대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함을 일깨웁니다.

안경상 부사장님은 자국 우선주의가 극우 정치와 종교적 결집과 결합하며 사회를 파괴하는 힘으로 전이되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오직 타자를 위해 있을 때만 교회”라는 본혜퍼의 가르침을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김태홍 박사님은 기독교 담론이 민족주의·국가주의와 결합될 위기 앞에 K-컬처 팬덤의 액티비즘처럼 초국적 연대와 참여문화를 참고해 교회 간 연대, 타국 교회와의 초국적 연대,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신앙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 속에서 나누는 길을 모색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석종준 목사님이 김병연 교수님을 만나 자국 우선주의의 현실과 기독교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교수님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미국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설명하며, 그동안 미국이 제공해온 국제 공공재를 기반으로 한 세계질서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보편

주의와 국가주의라는 양극단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갖추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과 교회가 자유와 민주라는 기독교적이자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는 학회 부총무이신 박지희 교수님이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모습을 통해 학문이 신앙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험을 나눕니다. 나아가 동역회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생동하는 ‘배움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시론 / 일터〉의 김지민 형제는 자국 우선주의라는 집단 이기주의의 현상을 통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시대 속에서 확장되는 이기주의를 인식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황은주 자매는 그리스도인 대학생으로서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치열하게 활동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최한나 자매는 계획하던 길이 막히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일하며 어르신들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느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강진구 교수님은 〈영화를 보다〉에서 라바키 감독의 〈가버나움〉(2019)이 사랑과 우정, 신뢰의 가치를 잃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고 소개합니다. 〈미술을 보다〉의 서성록 교수님은 사진작가 구르스키(Andreas Gursky)의 〈99센트〉와 〈나트랑〉 같은 작품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 미니멀리즘의 격자 패턴을 현실로 착각하게 만들며, 급격화된 ‘똑같음(sameness)’이 무한 경쟁과 물질 중심주의의 현장을 고발하는 모습을 알려줍니다. 〈책을 읽

다〉에서는 양성만 교수님이 자우스트라 부부가 편집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1898년 〈칼뱅주의 강연〉 해설서인 〈세속시대를 위한 칼뱅주의〉를 ‘칼뱅주의와 정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평을 했습니다.

〈교회로〉에는 23년 전 사이판 선교를 마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전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성숙한 교회를 향해 성장하고 있는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최윤석 목사님과, ‘혁신반’에서 신앙 성장을 경험한 김한나 성도님의 간증이 소개됩니다.

〈온전한 지성〉에는 최용준 교수님이 지난 호에 이어 반 리센의 기독교 학문 이론체계에 대한 소개를 연재합니다. 아울러 ‘제4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소식과 제2회 기독교중등학생 독서대회의 수상자 신은수(대상), 이온유(고등부 최우수상), 신예강(중등부 최우수상) 학생의 독후감 요약이 실렸습니다.

국제정세가 긴장으로 가득한 올해도 주님께서 동역회의 섬김에 많은 결실을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동역회 회원님과 후원교회들에 감사드립니다. 소식지를 낼 때마다 글을 써 주시는 필자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기획에서 교정의 마무리까지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 편집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살롬.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집단 정서의 관점에서 본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기독교적 대응*

김상덕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근대 사회는 오랫동안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이해해 왔다. 하버마스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한다면, 결국 옳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현실은 어떨까? 이성적 토론보다는 감정적 반응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듯 보인다. 정치와 종교,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분노, 불안, 혐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우리가 감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탈진실’(post-truth)은 ‘사실보다 감정이 더 큰 힘을 갖는 사회 현상’을 말한다.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보다 자신의 믿음이나 진리 체계를 지켜주는 거짓을 선택한다. 이를 가리켜 ‘인지 편향’(cognitive bias)이라고 한다. 이런 경향은 집단 안에서 더 강화된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정체성의 감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단순한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집단의 결속을 유지하고 타인을 배제하는 정치적 에너지로 작동한다. 즉, 가짜뉴스를 믿거나 소비하는 원인은 단순히 무지해서가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의 감정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 선택에 가깝다. 모든 감정이 나를 형성하거나 인지 편향을 만드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은 이성적 판단에 꼭 필요하다.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와 리사 펠드먼 배릿(Lisa Feldman Barrett)은 감정이 이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느낄 때조차, 그 밑바닥에는 이미 감정이 작동하고 있다. 즉,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판단의 전제이며,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이 연결된 하나의 통합된 과정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정동’(affect)이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나 마수미(B. Masumi)와 같은 학자들은 정동을 가리켜 감정이 발생하고 움직이는 힘으로 보았다. 즉, 인간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힘, 에너지, 또는 역학 관계가 바로 감정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정동은 개개인의 차이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 집단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문화적 서사 또는 정체성을 설명할 때 특히 유용하다. 왜냐하면 정동은 개인 안에만 머물지 않고, 집단적 정서로 확장되며 사회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2년 한일월드컵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

* 이 글은 지난 10월 18일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제4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주제강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을 떠올려 보라. 그것은 한국인에게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정동적인 경험'으로 각인되어 '한국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광장의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자. 이들은 왜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소비하고, 나아가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는 것일까? 이런 판단과 행동에는 바로 감정(정동)이 내재한다. 특히 한국 역사를 거쳐 형성된 집단 트라우마처럼 말이다. 일제 식민주의부터 전쟁과 분단, 독재의 기억은 공포와 적대의 감정(정동)이 각인되어, 한국 개신교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왔다. 이 감정은 세대를 넘어 전이되고, 정치적 판단과 종교적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신앙'의 이름을 내걸지만, 실은 두려움과 분노, 혐오의 감정이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 비판하기보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감정의 전환과 정동의 치유가 신학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필자는 혐오와 배제의 대안적 기억으로서 기독교의 성육신에 주목한다. 아타나시우스는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성육신의 신비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몸을 입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감정, 즉 몸의 언어로 표현된 실제적 사랑을 의미한다. 성육신의 사랑은 타인의 고통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사랑이다.

혐오는 두려움의 일부이지만 공포와는 구별된다. 공포는 자신보다 강한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이라면 혐오는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 대한 우월적이고 지배적인 동시에 폭력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자국 우선주의는 주로 자신보다 약한 국가, 인종,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비난하는 형태로 등장한

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적 가치와 매우 상반된 것이다. 성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천명한다. 그럼에도 다수의 국가에서 혐오와 배제의 정책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두려움(혐오) 때문이다.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요일 4:18).

우선, 한국교회는 이 성육신의 사랑을 어느 때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말과 머리로만 아는 진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다. 성만찬과 예전적 실천의 가능성에 주목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자체가 곧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의 거룩함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 갱신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광장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공공신학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우리는 혐오와 두려움에 맞설 수 있으며, 사랑으로 넉넉히 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할 힘과 지혜가 있다. 이것이 오늘날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기도요 실천이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상덕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이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연구실장을 역임했다. 미국 보스턴대학교와 에모리대학교에서 각각 목회학 석사와 신학석사를 마쳤고, 영국 에든버러대학교에서 기독교윤리와 실천신학 전공으로 철학박사학위(Ph.D)를 받았다. 공공신학, 평화학, 미디어연구 등 학제 간 연구를 통하여 갈등을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회의 공적 역할과 창조적 실천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어느 외국도 모국이요, 어느 모국도 외국입니다

서동준 (한국성서대학교 성서학과 / 에딘버러 대학교 세계기독교학 박사)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자국 우선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제 협력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질서가 도전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자국 우선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국가나 민족, 혹은 특정 정치 이념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종종 진자운동처럼 양극단을 오간다. 20세기 말, 냉전의 종언과 함께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축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국제 질서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방향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다. 이러한 진자운동은 한국 개신교의 정치참여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과거 한국 개신교는 정교분리의 원리 아래 원칙적으로는 비정치화를 지향했으나, 점차 이에 대한 반발로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정치적 책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그 정반대의 문제, 곧 과잉 정치화로 인해 특정 정치세력과 지나치게 밀착되면서 복음의 초월성과 보편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선교 역사가이자 세계기독교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앤드류 월스(Andrew Walls)는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리이자 복음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토착화 원

리’(Indigenizing Principle)와 ‘순례자 원리’(Pilgrim Principle)를 제시한다. 토착화 원리는 복음이 각 사회와 문화 속에 구체적으로 뿌리내리는 특성을 말한다. 토착화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고후 5:17) 사회·문화적 진공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새로운 존재 양식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어떤 문화와 사회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다채롭게 각 문화와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그것을 변혁시켜왔다. 결국, 토착화 원리란 우리가 속한 문화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뿌리를 내리는 복음이 지닌 특성 혹은 능력을 말하며, 사회·정치 영역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노력도 이 원리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순례자 원리는 이 세상에 속했으나 또한 속하지 않은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한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터전이 영구한 터전이 아님을 기억하며(히 13:14), 하늘에 시민권을 둔 순례자로 살아간다(빌 3:20).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사회를 결코 궁극적 형태로 인식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고 또한 변혁시킨다. 이러한 순례자 정체성은 시대, 장소, 문화

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을 연결하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주적인 공통성을 부여한다.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 ‘교회의 보편성’ 혹은 ‘공교회성’이라고 불리며 전수되어온 인식이다. 비록 다른 국가와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심지어 다른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본향을 둔 순례자들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라는 공유된 정체성을 소유한다. 결국, 순례자 원리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의 가족으로 연결하는 복음이 지닌 특성 혹은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는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원리를 함께 견지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체스터턴(G. K. Chesterton)이 <정통 Orthodoxy>에서 지적하듯, 언제나 비극은 서로 대립되어 보이는 기독교의 특성들 중 하나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발생했다. 토착화 원리만이 강조될 때 복음은 특정 문화나 민족주의의 포로가 되고, 순례자 원리만이 강조될 때 기독교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자국 우선주의와 과잉 정치화에 함몰된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이 두 원리 가운데 하나의 원리, 곧 순례자 원리에 대한 강조가 우리 가운데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인 지도 모른다. 순례자 원리는 우리가 속한 국가와 문화가 궁극적인 형태가 아니며, 따라서 이를 복음의 빛 안에서 끊임없이 비판하여 변혁해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하고, 또한 모든 문화·시대·인종·사회경제적 배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들과의 연대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자국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민족주의·국가주의로 복음을 축소하지 않

으며, 국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순례자 원리가 자국 우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러한 점에서 2세기 경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Epistle to Diognetus>에 묘사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과 숙제를 남긴다.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과 차이는 국적, 언어, 관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들어 떨어져 살거나,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별난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놀랍고도 실로 인상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살아가되, 단지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시민으로서 그들은 다른 이들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지만,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외국도 모국이요, 어느 모국도 외국입니다.”¹⁾ **FAITH & LIFE**



글쓴이 서동준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세계기독교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현재는 한국성서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와 에딘버러 대학에서 세계기독교학으로 신학 석사를 받았다. 역서로는 <빌리 그레함: 한 영혼을 위한 발걸음>이 있으며, 2021년에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수여하는 World Christianities Essay Prize를 수상하였다.

1) *The Epistle To Diognetus*, Early Christian Writings. <https://earlychristianwritings.com/text/diognetus-lightfoot.html>. ; 앤드류 웰스 외 5인, <기독교의 미래>, 서울: 청림, 2009, p. 42.

구원자와 심판자 : 미국의 트럼프즘과 기독교 복음

정성철 (명지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트럼프즘의 폭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미국발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정부는 산업과 국방 대응전략을 수시로 짜내고 개인은 물가와 경기를 우려하며 초조하다. 강자의 정치에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에 자괴감을 토로하는 한편,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각자도생의 원리를 설파한다. 트럼프를 세속화의 물결을 가로막을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이들과 그를 추잡하고 무도한 정치인으로 비판하는 이들 사이에서 반목과 불신의 장벽은 날로 높아만 간다. 그야말로 양극화의 파도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 특히 복음주의 교회들은 왜 트럼프와 그의 자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가? 다수의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미국 백인 중산층의 두려움이다. 자신들의 오랜 삶의 가치와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깊은 우려가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거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오랫동안 다수이자 강자였던 그들의 지위가 위태하다. 미국 인구 중 백인(히스패닉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79.6%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 56.3%에 이르렀다. 2024년 기준 18세 이하에서 백인은 47.5%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인구성장률을 보인다. 개신교 백인이 다수를 점하는 미국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약 20년 전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우리는 누구인가?〉(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n's National Identity)에서 지적하였다. 미국 백인의 입장에서 스스로에게 경고한 셈이었다. 우리의 종교(개신교)와 언어(영어)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때가 곧 온다고 말이다. 1990년대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에 등극했지만 다양한 사회 문제를 둘러싼 반목을 피할 수 없었다. 미국 정치 체제와 문화는 낙태, 동성애, 총기, 인종 등을 둘러싼 합의가 아니라 전선을 지속적으로 양산하면서 경제와 사회 안정성을 약화시켰고 급기야 2008년 금융위기를 낳고 말았다.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미국 엘리트의 불의와 무능이 빚어낸 비극이었음에도 미국의 변화는 시위와 선거에서 난무한 구호에 그쳤고 사회 불만은 고조되었다.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이러한 백인 중산층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대답한 정치인이 바로 트럼프였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과 불안을 이용했다. 모든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그러듯이 말이다. 다만 트럼프는 한층 선명했고 대담했다. 명료하고 통쾌하게 미국 정치와 경제 엘리트를 비난했다. 그들을 사악한 심층국가(Deep State)로 규정하고 이와 맞서 싸울 용사로 자신을 소개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 덕분에 트럼프의 선전과 비난을 그의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강화시켰다. 물론 반(反)트럼프 연대가 발 빠르게 구축된 것도 사실이었으나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모든 이들의 지지를 추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지도자로 만들어준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숙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러한 면에서 트럼프는 신실했고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마치 구원자와 같았다.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 religion and politics)의 관점에서 미국의 트럼프를 러시아의 푸틴, 헝가리의 오르반, 터키의 에르도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등과 흔히 비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교적 관점에서 선과 악을 나누고 자신을 선의 수호자이자 국가의 구원자로 포장하는 지도자들이 최근 들어 급부상한다. 그들은 경제 불안과 종교 약화를 두려워하는 대중에게 전통 가치와 강력한 리더십을 약속하면서 자신들의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러한 ‘스트롱맨’ 무리의 우두머리는 단연 트럼프이다. 개인과 소수의 인권을 강조하며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정치를 세계로 수출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국 백인 중산층의 구원자를 갈구하는 열망은 뜨거웠고 그 결과 트럼프는 뉴미디어와 양당체제를 활용해 두 차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심판자의 자리를 선사한다. 실제로 판결을 내리고 처벌을 집행하지 않지만, 그러한 효능감을 제공한다. 누구에 대하여? 바로 민주당, 소수자, 이민자 등이 목표물이다. 트럼프의 거친 언사는 민망할 정도이지만 그것을 소비하며 만족을 느끼는 대중이 많다.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은 자신과 미국 기독교 사이의 연대를 낳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미국 교회의 자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 복지 제도가 일상을 더럽히는 상황에서 그

들의 반대와 저항은 거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려는 ‘나라, 권력, 영광’이 진정 하나님의 그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그것인지를 찬찬히 캐묻는 앨버타(Tim Alberta)의 고언은 소중하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거부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기를 선택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물어야 할 때이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어느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삼상 8:5).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야로 기대하여 따랐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의분을 해소할 헛된 구원자를 찾는 노력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한편, 타인을 판단하여 제압하고 통제하여 심판자가 되려는 옛사람은 우리를 지금도 곤고하게 한다. 백은 선악과를 권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창 3:6) 것이라 말하였다. 누가 선악의 기준을 세우며 심판할 수 있는가? 세세 요한과 사도 바울은 구원자로의 추대를 거부하였으며(요 3:30, 행 14:15), 요셉과 다윗은 각각 형들과 사울을 심판하지 않았다(창 50:19, 삼상 24:6). 트럼프즘이 촉발한 자국우선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와 심판자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삶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정성철

명지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이다.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한반도 관점에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한반도평화연구원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으며 〈국가는 왜 싸우는가?〉, 〈삼각관계로 바라보는 국제정치〉 등의 책과 논문을 썼다.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의 물결 속 경건한 경영인의 사명

권오병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샌디에고에서의 교환교수 시절, 귀가할 때 편도 2차선을 가다가 신호등을 지나면 얼마 안 가서 1차선으로 좁혀지는 길이 있었다. 그 지역 거주자들은 이렇게 차선이 줄어드는 것을 알기에 신호등 앞에서부터 한 줄로 차를 세워 순서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후 그 지역에 이주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길게 늘어선 차선을 기다리지 않고 2차선으로 가 신호등 앞에서 서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얼마 동안 이득을 누렸다. 그리고 몇 주 후 지역민들도 배려의 훈훈함은 온데 간데없고 1, 2차선 가리지 않고 앞을 다뒤편다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누구의 탓일까.

최근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Global Nationalism)가 목도되고 있다. 쉽게 말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지구 공동체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글이 되었다는 뜻이다. 기독교 정신이 비교적 강하여 원조하고 일정 부분 손해를 감내하던 20세기의 미국은 당시 자국 우선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는 자제하였다. 이

제 미국마저도 자국중심주의로 선회하니 자국 우선주의가 전 지구적이 된 것으로 진단된다. 자국 중심성 및 갈등의 지구화, 분열의 가중으로 특징되는 21세기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는 성경에서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에 충돌보다는 부합되는 면이 더 많다(단2:41-43; 시2:1-3; 딤후3:1-2; 마24:6-7).

자국 우선주의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에게 에덴동산을 주시며 경작하고 관리케 하셨고(창 2:15), 이후 인류를 온 땅에 거하게 하실 때에도 그들의 거주를 한정하셨다(행 17:26).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근면하고 여호와이레와 주신 분복(分福)에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계를 넘는 침탈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예측되거나 대항하거나 보복하는 일이 따랐다. 사실상 인류 역사상 자국 우선주의가 아닌 적이 있었을까 생각된다.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시각은 (1) 인간은 전적인 타락 속에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고 인식하고, (2) 공동선과 상대방 국가에 대한 배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시각에 따라 글로벌 정치경제도 하나님의 영역이자 회복의 영역이며, 도예베르트에 따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의 책임이 따른다.

미국 정치는 일견 보수의 자국 우선주의와 진보적 보편가치 내지 글로벌리즘의 싸움처럼 보인다. 신앙적 관점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나 전 세계를 세속적 보편가치로 뒤덮으려는 글로벌리즘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및 국가 경영 영역에서의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과 자국 우선주의적 행동은 철저히 분별해야 한다. 아사, 여호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할 때 국익이나 왕권 강화를 노리고 했다면 그것이 주 앞에 인정되었겠는가. 그들은 철저히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진실한 예배와 함께 우상숭배자들과 싸웠다. 신앙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나안 족속 및 이웃 나라들과 그들의 영적 영향력을 거부하려 했다. 이것은 세칭 자국 우선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한편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면,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에 빠진 오늘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도래 전 굴곡의 한 과정일 뿐이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맡겨진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착하고 충성된 일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중 한 가지는 무너진 터,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손해를 감내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은 신뢰와 상호호혜의 사회적 자본이 된다. 누군가 공적 자본인 사회적 자본을 갉아 그것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불의한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을 멈추면 안된다. 마치 누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흙탕물을 일으키더라도 시냇물은 꾸준히

새물을 흘러내어 기어코 다시 깨끗한 냇물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경영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건한 경영인에게 보수와 진보 프레임이 아닌 하늘에 속할 것인가 땅에 속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나 글로벌리즘이나 모두 극복할 대상으로 보일 것이다. 물론,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의 물결은 한두 기업이 거스르고 넘기에는 벽찬 대상일 것이므로, 자국 우선주의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다국가 기업 연합'(Multinational Corporate Alliances)을 고려해볼 직 하다. 이미 특정 국가에의 종속을 막기 위한 '오픈 RAN 연합'(Open RAN Alliance, 5G 네트워크 개방형 표준화를 추진하는 글로벌 협의체)나 배터리 종속을 막기 위한 '다국적 배터리 연합'(Multinational Battery Alliance) 등 유사 사례가 있다. 이 연합들을 연구하여 선한 기업 연합을 이루어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고 상호호혜를 준수한다. 세계 교회는 이 연합들을 격려하고 기독교 대학은 이 연합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일할 인재를 키운다. 다 함께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루어나간다. 세상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떠나 이런 움직임은 어두운 바다의 등대 불빛으로 맞을 내는 소금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권오병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경영과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1996~2003), 미국 카네기멜론대 방문과학자(2002~2003), Asis Pacific Journal of Business Review 편집위원장, 차세대정보기술연구센터 센터장, SSK 4차산업혁명연구단장, 경희대 부총장,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의 발톱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14년 5,200억 달러에서 2024년 9,200억 달러로 약 1.8배 확대되었다. 상품무역만 보면 적자 폭이 2024년 1조 2,000억 달러 수준이었다. 2024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2조 700억 달러였고 누적 재정 적자는 무려 37조 달러 규모이다. 2024년의 재정 적자 규모가 미국 국방 예산의 2.3배 수준이다. 구조적인 쌍둥이 적자만 보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점잖은 표현이고 ‘자국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0월 2026년 7월부터 철강 제품에 대해 무관세 수입할당 물량(quota)을 50% 감축하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의 철강동맹을 통해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을 규제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보호무역주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은 원재료 수준의 핵심 광물질의 수출을 규제하는 대신 자국에서 핵심 원자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불공정한 수입 증대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아니라 커다란 열기구가 솟

아오르는 듯하다.

개인, 기업, 국가의 자기중심적이고 우선적인 선택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인류 역사는 자기 우선적이었다. 비단 전쟁 차원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고 주거 공간에 울타리를 치며 생존하기 위한 활동의 기저에는 자기 우선적인 선택이 작동한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 민족을 돌보기 전에 자기 우선적인 생존을 선택했다. 예수께서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자녀의 떡’도 유대민족 우선주의로 연결되며, 제자들의 복음 전파 순서를 언급하실 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사마리아보다 앞세웠다. 관건은 자기(자국) 우선주의 자체가 아니라 그 이행방식과 목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으로 촉발시킨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이행방식에서 마찰과 강압과 위협성을 나타낸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 적자의 심화, 제조업의 쇠락으로 일자리 감소와 공급 역량 약화, 빈부격차 심화와 마약 확산의 사회적 불안 확대, 더욱 치열해지는 미중 패권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 증폭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세계 최강대국의 힘으로 완화하고 조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다른 국가들과 호혜적인 공감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압력으로 국가 이기주의를 최대화하려는 전략

적 선택을 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만’ 위대하게 하려는 이기심이 뽐족한 가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심지어는 10여 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 1200여 명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1930년 미국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국의 농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 증대와 수입 규제를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하여 기존 관세율 약 40%를 약 50%로 인상했다. 결과적으로 유럽 국가들도 보복 조치로 관세율을 높였고 보호무역주의가 도미노 현상으로 확산했다. 그 결과, 1930-32년 세계 무역 규모는 66%가 감소했고 미국의 무역 규모는 약 75%가 감축되었다. 나만을 위한 공격이 모두를 자해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내년이면 아담 스미스(A.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된 지 250주년이 된다. 국부론에서 상품과 시장의 순기능을 설명하는 핵심어는 ‘이기심’이다. 스미스는 타인에게 해(손실)를 끼치지 않는 ‘이기심’이 시장체제를 형성하고 작동케 하는 핵심 동인이라고 관찰했다. 자기(개인, 기업,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손실은 불가피하거나 상관없다는 현대적 이기심이나 경제 논리와는 사뭇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의 확장은 250년의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를 왜곡하고 뒤엎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트럼프즘(Trumpism)에 대한 비난이 우리의 주장이 될 수는 없다. 부조리한 힘과 강압의 논리에 기독교의 진리와 세계관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발톱은 한편으론 신체의 끝부분을 보호하고 힘을 전달하는 소극적 기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론 적극적인 공격용 도구로 사용된다. 이 발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존을 위한 유익한 신

체 일부가 되기도 하고 자연과 사회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맹목적인 이타주의를 일반화시키기 위한 교훈은 아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지적이 도입이고, 타인에 대한 자비 베품의 실천이 본질이다. 자비 베품은 공정하고 합당한 ‘이기심’(아담 스미스의 개념으로)의 바람직한 확장이랄 수 있다. 유대 열한 지파가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한 헌금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각 국가의 협상 전략과는 별도로 두 가지 큰 줄기를 재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이다. 자연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미국도 변한다. 트럼프 행정부도 3년 후면 임기가 만료된다. 1년 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레임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현재진행형이다. 트럼프식 관세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과 전략도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단기적 이익 추구는 지속될 수 없다. 다음으로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는 우리의 관점과 판단은 공감과 공생의 원칙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켜보시는 자연과 사회의 생태계는 더불어 살아가는 질서이기 때문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 전공 교수이다. 파리-낭떼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유학 중 파리한인침례교회를 계몽시키려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2015-17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 섬겼고 현재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100주년기념교회 장로이다.

자국 중심주의와 기독교적 공동체 이상 : 갈등인가, 재해석인가*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LT 학부 교수)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급부상하면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과 기후협력, 인권 증진 등 보편적 규범은 점점 균열을 보이고 있다. 세계는 '개방의 시대'에서 '경쟁과 자립의 시대'로 이동하며, 각국은 국제적 책임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세계화의 피로감과 지정학적 갈등이 낳은 시대적 흐름이다. 오랜 기간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진영을 주도하며, 인권과 경제적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게 되었는가? 더 나아가 자국 중심주의의 확산은 기독교 세계관과 양립 가능한가? 자국 우선주의의 대두에는 경제 구조의 변화와 사회

적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한때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산업 성장과 생산기지 이전으로 산업 기반이 약화되었고, 지역 공동체는 일자리를 잃었다. 이 모든 변화는 세계화 과정에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중하층의 불만이 정치적 움직임으로 변저 '잃어버린 미국'을 되찾자는 트럼프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급속한 기술력 확대는 패권 경쟁을 촉발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교류와 관여를, 2000년대 오바마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경쟁과 충돌로 변화했다. 대중국 강경 기조는 이제 미국 정치에서 초당적 합의로 굳어졌다. 역사적으로 고립주의와 관여, 혹은 팽창주의를 반복해온 미국이 다시금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이 글은 지난 10월 18일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제4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주제강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의 흐름은 이제 신앙의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 기독교는 인권, 평화, 정의를 중시해왔으나, 동시에 국가적 헌신과 신앙을 결합하는 경향도 존재했다. 특히 보수적 복음주의는 미국을 하나님이 택한 나라로 인식하면서, 국가의 번영과 안보를 신앙적 사명과 연결짓는 경향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신앙과 애국주의의 결합은 정치적 담론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는 듯하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국적과 신분, 인종을 넘어선 사랑과 연대에 있다면, 신앙이 국가의 번영 논리와 결합하는 순간 복음의 보편성은 흔들릴 수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신앙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복음은 인류 전체의 화해와 구원을 지향하며, 특정 민족의 번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국가주의와 결합한 신앙은 교회가 국가 권력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초 독일에서 ‘국가사회주의적 기독교’가 그러했듯, 신앙이 권력과 결합할 때 복음은 쉽게 왜곡된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국가의 이익을 하나님의 뜻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교회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한국 개신교는 미국 복음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으며 성장했다. 초기 선교의 유산 속에서 민족적 사명감과 국가적 신앙이 결합했고,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복음의 목표를 ‘국가 부흥’이나 ‘민족적 사명’과 연결하는 담론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은 복음의 보편성을 민족적 서사 속에 가두어 해석하게 만들고, 세계 공동체를 향한 교회의 보편적 사명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자국 우선주의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다. 다원주의로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오늘날,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의 원리에 뿌리를 둔 분별과 경계의식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되 타인과 사회에 대한 개방성과 공존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며, 그 구분이 배제나 고립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음에 뿌리를 둔 세계관은 두려움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신뢰와 협력, 화해와 평화를 향한 길을 보여줄 수 있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국경과 인종, 이념을 넘어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연대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선언은 이러한 삶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의 일원이며, 그에 걸맞게 신앙의 방향도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나라로 성장해야 하며, 복음의 열매는 민족적 한계를 넘어 세계 속 다양한 민족과 국가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확산되어야 한다. 이는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이 자국 중심주의 시대에도 이웃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FAITH & LIFE**



글쓴이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LT 학부 교수이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로서 국제경제와 지역연구를 강의하고 있으며, EU연구소장과 교육혁신원장을 맡고 있다. 서초구 사랑의교회에 출석하며, 유럽을 비롯한 서구 기독교 사회의 변화와 그 신앙적 함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와 종교적 극우

안경상 (이퀴녹스프라이빗에쿼티 부사장)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자국 우선주의의 기초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나 보호무역의 영역을 넘어, 국제적 연대와 규범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기능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가 이상일 수 없다. 세계화가 계급 갈등의 국제화, 착취적 노동환경의 외주화, 불평등을 불러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의 근저에 사회적 불안과 위기감을 배타적 정체성 정치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파시스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불안과 문화적 위기가 겹쳐 있는 토대 위에 분열과 혐오의 정치가 확산되고 있다.

역사는 경고한다. 20세기 유럽에서 국가(우선)주의와 민족주의는 급진화하여 대량학살과 전쟁으로 귀결됐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우 정치와 결합한 현재, 동일한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종교적 극우 현상은 기독교 신앙의 언어를 빌려 정치

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미국 복음주의에 기반을 둔 기독교 민족주의는 종교에 기반한 정치적 결집이 어떻게 혐오와 음모론, 폭력의 정당화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백인 복음주의의 문화적 헤게모니 상실, 다문화화에 대한 위협 인식, 신자유주의 재편에 따른 계층 격차 등과 결합해, 집단적 상실감과 배타적 결집이 상승적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 역시 개신교 내 선민사상과 변영 복음, 반공 이념, 신자유주의 가치의 결합이 특정 계층과 세대를 동원하여 정치 현장에 강렬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온라인의 급진 집단과 정치화된 교회의 결합은 혐오 담론을 사회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며, 이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은 타자와 약자를 포용하는 윤리적 자원에서 정치적 특권의 방패로 변질된다. 나는 현재 우리 사회가 20대 남성 중심의 극우화와 온라인 커뮤니티 결집,

일부 대형교회와 뉴라이트 집단이 올드라이트와 공동 전선을 형성해 사회적 불만, 젠더·민족·이념 이슈를 배타적 정치투쟁으로 조직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는 친미·반공주의, 이원론적 종말론, 자유시장 경제의 이상화 등 독특한 신학적 이념적 토대에 위에 사회 변화를 투쟁의 장으로 재정의한다.

한국 개신교의 문제는 신학적 자기비판의 결여와 공공신학의 부재에 있다. 교회가 '사회적 타당성'(Social Relevance)을 상실하고 이데올로기와 기득권 방어에 매몰될 때, 신앙 공동체는 급진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한다. 선민사상과 변영 복음은 불평등과 기득권을 신의 축복으로 포장하고, 정치적 배제를 신학적 정당성처럼 기만하며, 교회의 윤리 권위와 민주적 공론장을 전면적으로 훼손한다. 안타깝게도 항상 현실 정치 권력에 편에서 왔던 다수 한국 교회는 중앙 정치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여 당황하는 권위주의 정권 계보의 정치 집단과 같은 편에서 변화에 맞서 격렬히 대항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이 정치적 진보와 동일하다는 주장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마 25:34~46). 결코 최근 극우 정치의 기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종교없는 기독교'(Religionloses Christentum)와 바르트(Karl Barth)의 '종교를 대항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Das Christentum als Religion gegen Religion) 신학은 신앙이 권력, 민족적 신화, 특권의 수호자를 넘어서 타자와 실제적 연대와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

대응은 다층적이어야 한다. 첫째, 신학적 각성과 교육을 통해 복음적 사회윤리와 연대의 메시지를 복원해야 한다. 둘째, 교회와 시민사회가 혐오와 음모론에 맞선 공공 담론을 재확립해야 한다. 셋째, 거짓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음모론을 생성하고 인지 왜곡과 확증 편향의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혐오와 배제,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SNS와 온라인 미디어는 배격되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강화를 통해서도 공론장의 건강을 회복하여야 한다.

자국 우선주의와 종교적 결집이 결합할 때 사회를 파괴하는 힘으로 전이된다. 미국은 그 힘이 시민에 대한 국가 폭력으로 나타나기 직전까지 와 있는 듯하다. 한국 종교적 극우의 파시즘화도 상당 정도 진행되어 있다. 신앙을 특권 수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교회는 오직 타자를 위해 있을 때만 교회이다.”¹⁾

FAITH & LIFE

 글쓴이 안경상



'이퀴녹스프라이빗에쿼티' 부사장이다. '이퀴녹스프라이빗에쿼티'는 산업기반시설에 특화된 사모펀드 회사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부)를 졸업했고, 1993년 웨슬리 웬트워스(Wesley Wentworth) 선교사님을 만난 후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노력해왔다. 회원이지만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계속 읽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 주님의교회 교인이다.

1)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Briefe und Aufzeichnungen aus der Haft* (DBW Band 8, Chr. Kaiser Verlag, München, 1998), p. 560.

배타적 자국 우선주의와 K-컬처 팬덤의 대항적 액티비즘*

김태룡 (경희대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연구원)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는 세계의 제도와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적 규율 아래 시장과 생산 네트워크를 통합하며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자본주의는 로컬 사회가 자본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깊숙이 침투되고 종속되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이 지적하듯, 생산의 초국적화와 자본주의의 탈중심화, 글로벌 기업의 등장은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국민국가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는 오늘날 국민국가가 국민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보았다. 기존의 국민국가는 국경선을 통제하고 국민을 구성하며 국가성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와 구조의 재편 속에서, 국민국가는 더 이상 시민들의 삶을 온전히 규율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적 정책이 세계적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적 차원의 협력보다 자국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며 이를 통

해 외부를 배제하는 태도인 자국 우선주의는 주로 무역 장벽, 문화 검열, 이민 통제 등의 보호주의 정책의 차원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배타적 자국 우선주의의 발현은 국민국가의 약화를 알리는 징후로 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폭력성 강화, 시민사회의 약화, 국가 내 집단 간의 분규와 같은 양상들이 그 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전보다 더 권위주의적이고 강력한 성격의 국가와 마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는 민족주의·국가주의와 결합된 상태로 작동하며 국가의 권위를 강화한다. 그 과정에서 특정 범주와 기준에 의해 배제되는 사람이 발생한다. 이때 민족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 계급, 종교 등 여러 정체성의 요소에 따라 배타성이 형성된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선택적 배제는 사회 핵심부의 분열을 봉합하고 주변적 정체성과 반대 세력 억압의 정당화 자원으로 활용된다. 즉 배타적 자국 우선주의는 외부로 향한 배제뿐만 아니라 내부적 형태의 배제 논리 또한 동시에 생산해 낸다.

필자는 오랫동안 한류 및 K-컬처에 대해 연구해오며 글로벌 K-팬덤의 다양한 의미 생산과 실천에 주목하여 왔다. 그들은 K-컬처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 이 글은 지난 10월 18일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제4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소장학자 토론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인 참여를 시도하기도 한다. K-컬처 팬덤이 수행하는 ‘대항적 액티비즘’은 국경 간 연대를 통해 자국 우선주의의 배제 논리를 교란하는 실천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다양한 지역의 저항적 주체들은 K-컬처 팬덤이 공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상징물들, 연대에서 비롯된 사회적 에너지 등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확산된 흑인 인권운동(BLM)에 BTS의 팬덤 ARMY가 자발적으로 모금을 진행하여 후원한 사례가 있다. 이는 K-pop 팬들이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여 인종차별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치적 차원의 연대를 이룬 것이다. 둘째, 미국 내 K-pop 팬덤의 주도 아래 트럼프의 털사(Tulsa) 유세 당시 대규모 노쇼 캠페인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가 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2021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시민 불복종 운동에 K-pop 팬덤이 참여한 사례이다. 쿠데타 세력은 국가 권력 중심 구조를 복원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시민 중 일부는 K-pop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시위 문구로 활용하였으며, 글로벌 K-pop 팬덤은 시위대와 연대하며 그들에게 물자를 지원하였다. 넷째, 2021년 칠레 대선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의 지지세력이 K-pop 팬덤의 굿즈와 재생산 콘텐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이는 칠레 정부가 시도한 K-컬처에 대한 타자화 전략을 극복하고, 권위주의 진영의 재집권을 저지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배타성에 저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K-컬처 팬덤을 글로벌 자본과 국민국가 경계에 위치한 주변적 ‘로컬’로 간주하였을 때, 이미 한국 사회 내에서 주변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 역시 ‘로컬’의 일종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한국 기독교는 K-컬처 팬덤이 보여준 액티비즘으로부터 참고할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교회는 배타적 자국 우선주의의 시도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권위 재강화 시도와, 한국 기독교 내부에서 오랫동안 작동해오던 민족주의가 연동된 결과로 보인다. 국가나 정치가 기독교 담론을 민족주의·국가주의와 결합시켜 활용할 때,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이 배제되거나 종속될 위험이 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초국적 연대와 참여문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 K-컬처 팬덤의 액티비즘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교회 간의 연대, 타 국가 교회와의 초국적 연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상상하게 한다. 이러한 수평적 연대를 토대로 글로벌 사회문제에 함께 참여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 캠페인을 실천하는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은 교회가 다시 공공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 속에서 나누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태룡



경희대학교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연구원이다.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문화콘텐츠학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현재 강의를 병행하며 기독교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한류, K-pop 등을 연구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샘물교회 집사이다.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기독교 :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북한과 지정학의 전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리더이기도 하신 김병연 교수님(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전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통일평화연구원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바른 판단과 행동을 위한 혜안을 얻고자 한다.



일시 2025년 10월 13일(월), 오후 3시.

장소 서울대 사회과학대(16동) 610호 연구실

인터뷰어 석종준(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모임 지도목사)

사진 김건우(서울대 우주항공학과 박사과정)

석종준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전문가로서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된 ‘자국 우선주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김병연 아마도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지요. 그래서 “국제질서라는 것은 정글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역사를 보면 항상 국가 단위의 여러 가지 다툼이나 갈등, 전쟁이 있었기에 그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의 평화로웠던 때가 오히려 예외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종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한편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세계무역질서, 동맹의 신뢰성과 민주주의, 기후협력과 공공재 동력 등 인류가 축적해 온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기에 장기적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연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미국

공화당은 국가주의, 민주당은 보편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너무 단순한 이분법 같아요. 현재 미국 정책을 보면 국가주의로 모든 것을 포괄하기도 어려워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보편주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편주의는 평등과 약자에 관한 관심을 강조하잖아요.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 때 그랬죠. 지금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가족을 중시하고,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고 있지요. 이것도 사실 미국의 중요한 전통적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주의도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미국을 되살리자는 가치 중심파, ‘마가’라 부르는 미국 우선주의파, 그리고 트럼프의 거래적인 성향 등이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약자와 평등에 관한 관심은 얼마나 귀중한 성경적 가치입니까? 그런데 공화당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을 기반으로 한 사회 질서도 매우 중요한 성경적 가치입니다.

다. 그러나 이 중요한 가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분리되고 분열되고 극단화된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석종준 전문가들은 미국 자국 우선주의 배경을 ‘러스트 벨트 지역’으로 상징되는 산업과 중산층의 붕괴, 37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160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부채,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패권국 유지에 대한 위기감 등이 낳은 현 정부의 대안적 해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김병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이기려면 경제가 튼튼해야 하는데, 지금 근본적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입니다. 한쪽에는 높은 연봉을 주는 ‘빅테크’ 첨단 기술 기업, 금융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자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실업을 당하고 소득이 오르지 않은 블루칼라 노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의 하나로 첨단제조업을 다시 일으켜서 중산층을 키우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중국과 경쟁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정책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근원적인 문제라면, 미국의 가장 급한 발등의 불은 재정 적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각에서는 재정 적자가 너무 커져서 어떤 정책도 제대로 펴기 어렵고, 특히 중국과 패권 경쟁이 중요한 시점에 국가부채로 발목을 잡히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관세를 부과해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외국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하게 하려는 방안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나 일본의 힘도 필요하고 유럽연합 국가들의 협력도 필요한데, 이 나라들에 관세를 매기고 억지로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겠지요. 이러한 신뢰 약화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석종준 최근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국 정치와 경제 문제를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로 풀려는 경향은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연 국가주의로 돌아가면 세계가 혼란스러워지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교적 안정된 국제질서는 미국이 소위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했기에 가능했어요. 세계 시장이 하나로 돌아가려면 정치적 안정이 필요한데,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UN, IMF, 세계은행,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나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돕기도 하면서 국제질서를 안정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세계 경찰국가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국가주의로 돌아서서, 국제질서 유지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강압하고 지배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은 끔찍한 거죠. 그러면 현재 미국을 대신할 나라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할 의지가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중국은 특히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한다고 해도 반대할 나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핵심은 미국이 지금 어려워서 자국 이익을 더 우선하지만, 동맹국이나 다른 우방국들이 도와주면 원상 복귀해서 국제 공공재를 계속 공급하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가 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미국이 어떻게 결정할지 참 중요한 문제고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석종준 ‘자국 우선주의’ 문제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보호”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강력히 지지하고, 동시에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과 이웃 사랑”(마 7:12)이라는 가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병연 사실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뿌리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모두 성경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찾았기에, 한쪽이 무조건 옳고 한쪽은 무조건 틀렸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친 확신을 가진 분들이 많지요. 그 확신을 조금 멈출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이른바 보편주의라서 약자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말도 부분적으로만 사실 같아요. 현실 정치는 타락한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DEI, 즉 다양성(Diversity), 공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은 성경적 가치와 부합하는 말이지만, 공화당은 이른바 국가주의 입장에서 결국 그것이 동성애, 성 소수자(LGBTQ)의 권리를 강조하다가 가족까지 해체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의 보편주의를 공격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타락한 국가주의도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가주의는 크게 보면 자기중심주의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국가주의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9-1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 구원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확인됩니다. 따라서 가족, 이웃, 국가라는 것도 자기 정체성의 요소이기에 미국이 자기 나라를 잘되게 하고 싶다는 것을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미국도 그 결과가 세계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자기 수정력이 있고, 일시적으로 이탈해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석종준 현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 선상에서 비슷한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병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한 경험을 되살려 보면, 어떤 주제가 나오면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요. 어떤 연구는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전체 윤곽을 잡아주죠. 그리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특히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정치와 사회 문제에 완벽하게 옳고 그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은 전체 윤곽을 모른 채 토론도 하지 않고 일단 답부터 찾게 하잖아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정답을 지금은 보통 유튜브에서 많이 찾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정치인이나 정당, SNS에서의 주장은 판단을 유보한 채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살펴보려는 태도가 필요한데 말이지요. 두 번째는 독립적 사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더라.” 혹은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라면서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적 판단이나 행위는 다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도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독립적인 사고를 하도록, 좌표까지 정확히 찍어서 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쪽저쪽에 속하지 않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의 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보다는 기존 언론매체의 여러 칼럼이라든지, 나름 양심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싶어요.

석종준 성경의 복음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축소되지 않기 위해,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할 ‘공적 신앙’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김병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뭘 했는가가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빌 1:24)이라고 말씀했지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국면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타락한 보편주의와 타락한 국가주의지요. 우리는 극단을 배제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왜 진정으로 가족을 중시하면서 진정으로 약자에 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두 가치가 긴장 가운데서도 조화를 이루어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고 사회 속에 체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석종준 교수님은 지금처럼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김병연 “모든 나라가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다. 트럼프를 봐라. 우리나라만 안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글썽요. 트럼프가 대통령을 계속할 것도 아니고 유럽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유럽이 자국 중심주의라면 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습니까? 유럽이 이렇게 하는 이유의 상당한 부분은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있거든요. 또 모든 나라가 자국 중심주의로 갔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한국의 자유를 지켜 주기 위해 희생한 결과 때문이잖아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한국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식민지였다가 이렇게 발전한 경우는 없어요. 무역 순위 세계 10위, 경제 규모 세계 13위였다가 중국을 제외하면 첨단제조업까지 다 가진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만약에 동맹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고 미-중 패권 경쟁을 펼쳐갈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나 세계 경제에서 한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거나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체제는 반성경적이지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에 다시 한번 ‘자유’와 ‘민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일부 나라가 자국 중심주의로 가더라도 우리는 국익 속에 이 정체성과 가치를 포함시켜 이를 항상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석종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병연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사고가 필요해요. 성급히 정답을 찾으려 말고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매우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그 결론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겸손함이 필요하지요. 저도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의 글을 쓸 때도 이게 맞나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합니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자국 우선주의, 보편주의와 국가주의, 이런 문제에 관해 정확한 답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뿐 아닐까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답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고, 적어도 30%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해야 할 것 같아요. 마땅히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고민이 없다면 공공선이 없는 신앙, 다시 말해 신앙의 절반을 잃어버린 셈이지요. 그러나 교계나 교회가 어느 당,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자고 나서게 되면 우리는 타락한 국가주의, 타락한 보편주의의 위험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좌표를 찍어주시기보다는 성경적 방향, 즉 멀리 보이는 등대를 제시하시면서 교인 스스로가 우리 사회 문제를 끌어안고 성경적으로 고민하도록 도전하는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FAITH & LIFE**

신앙과 학문이 만나는 자리, 배움이 섬김이 되는 길

박지희 (건국대학교 조교수 / 기독교학문연구회 부총무)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융합혁신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다. 융합교육, 신입생 기초교육, 전공자울선택제 등 대학의 교육혁신과 관련한 기획과 연구를 총괄하며,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또한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을 위한 전공탐색 교과를 개발·운영하며,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학습 경험이 어떤 것인지 그 경험이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등교육 현장에서 학령기 일반학습자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경험과 성과를 연구하며,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나의 학문적 여정의 시작은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였다. '사랑, 진리, 봉사'의 교훈 아래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신앙과 학문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고, '배움을 통한 나눔이 곧 섬김'이라는 교육 철학이 제 안에 뿌리내렸다. 특히 학문과 신앙이 일원화된 삶을 보여주신 김태항 교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 학자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그 인연은 기독교학문연구회 부총무로 섬기는 지

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학부 시절의 믿음의 배움이 동역의 관계로 확장되어 신앙과 학문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늘 감사함을 느낀다.

신앙과 학문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대학원 시절에도 이어졌다. 고등교육을 전공하며, 학문을 통한 배움이 신앙의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대학의 제도와 교육 현장을 함께 연구했다. 정책 분석, 제도 설계, 교육 효과 검증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문이 현실의 교육과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배운 것을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청소년과 대학생을 연결한 멘토링 교육을 기획·운영하며, 교육이 곧 섬김임을 몸소 실천했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과 서울시와의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을 통해, 나이를 막론하고 배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자 노력했다. 나에게 교육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세상 속에서 나누는 과정이며, 학문과 신앙이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욱 온전히 완성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은 오늘날 학문과 신앙의 접점을 모색하는 나의 사역과도 맞닿아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내게 학문과 신앙이 공존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해준 귀한 공동체이다. 나는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주로 학술대회에서 사회를 진행하거나 교육학 분야 논찬을 섬기고 있는데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학문이 신앙의 실천이 될 수 있음을 몸소 깨닫는다. 서로 다른 전공과 길을 걸어온 연구자들이 한 신앙 안에서 대화하고 배우는 그 자리가, 학문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이라 생각한다.

내가 연구와 교육에서 던지는 중심 질문은 “학생은 어떤 학습 경험을 통해 변화되는가?”이다. 급변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며, 그 ‘사람’의 배움과 성장의 흔적이 곧 교육의 가치라고 믿는다. 물론 대학의 발전은 사회적 변화나 정책적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발전은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고,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며, 교수자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연구, 교육, 봉사)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학생과 교수자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살아 있는 조직이어야 하며, 그 안에서 쌓이는 교육 실천이 서로를 자극하며 새로운 학습 문화를 형성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상호 성장과 헌신의 순환이야말로 대학이 생명력 있는 기관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 역시 이러한 교육의 장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단지 미션스쿨의 영역에만 머무는 신앙 교육을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의 회복이라 생각한다.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학생과 교수자가 진리, 정의, 관계, 섬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학문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나는 교회 안 신앙의 언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진리와 사랑, 책임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리라 믿는다. 학문이 이러한 신앙적 가치와 함께할 때, 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공간을 넘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생명의 터전이 될 것이다.

앞으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숨 쉬는 ‘배움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 또한 대학교육뿐 아니라 교회교육의 현장에서도 사랑과 진리의 실천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하고 나누는 동역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과 학문이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동역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 부총무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나는 이 사명에 계속 동행하겠다. 배움이 섬김이 되고 학문이 신앙이 되는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작은 연구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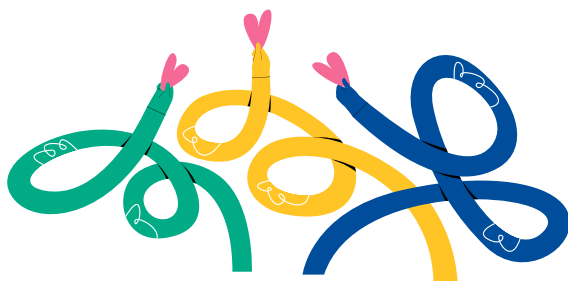


글쓴이 박지희

건국대학교 조교수이자 융합혁신교육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석사 및 철학박사(Ph.D., 고등교육전공) 학위를 받았다. 여의도침례교회에서 사모로, 기독교학문연구회 부총무로 섬기고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끄는 학습자 성장과 교육 성과에 관심을 두고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대학생의 학습경험과 성과, 고등교육정책, 그리고 Institutional Research(IR)이다.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그 위에 사랑을

김지민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석사과정)



최근 뉴스를 보면 국내 소식을 못지않게 글로벌 이슈들로 시끄럽다. 특히 미국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으로 인해 세계 무역 시장은 혼돈 속에 있고 각 나라의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시대의 서막이 열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마 24:7-8)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나라가 대내적 위기에 이어 대외적 위기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된다.

자국 우선주의, 혹은 자국민 우선주의는 외국인이나 다른 국가보다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념이나 정책을 말한다. 당연히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할 수 있고, 국민이 국가의 3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자국민을 우선시하겠다는 말을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적절한 균형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자국 우선주의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여 기존의 외교적 관계를 저버리거나 타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국의 이익만을 탐하는 행태는 용인될 수 없다. 이는 세계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명백한 집단 이기주의의 한 형태이며, 인간 사회에

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이기주의의 현상이다. 집단 이기주의는 경기침체, 안보 위기, 불평등 심화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 사회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개인 이기주의가 위기의 극복을 위해 집단의 경계를 강화하고 외집단으로 화살을 돌리며 집단 이기주의로 전환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향하는 이기주의의 전환을 반대로 적용하면 자국 우선주의는 개인 이기주의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개인 차원의 이기주의가 집단의 정체성 속에서 외부로 향할 때 집단이기주의로 발현되기에 우리는 자국 우선주의의 해결책의 한 측면을 개인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적 규모의 움직임에 대해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일까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던 나에게 이러한 관점의 발견은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를 극복하는 작은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은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남을 살리는 이타주의이다. 아니, 이타주의 정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다. 세상은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서 쟁취하는 상승 지향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낮은 자리로 가는 하강의 삶을 말한다. 나에게 한정된 자원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적어도 이익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쉽게 빠지는 함정은 나에게도 이익이 될 때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지 않기로 어렵지 않아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답하셨다(마 22:36-39). 즉,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의 실천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에(고전 13:4-5)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미 먼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하여 주셨고, 진노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러한 이타적 삶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으며(마 6:33),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롬 8:28) 성경은 말하고 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도 험난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남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이기는 결과를 알고 있는 스포츠 경기 재방송을 볼 때 긴장하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일에 염려와 망설임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자국 우선주의와 유사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선주의’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모든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기는 몸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며 성도 수를 늘리는 데 연연한다면 교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꼭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고 온전한 공동체를 찾아 접붙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 진정 바람직한 교회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글을 마치며,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라는 집단이기주의 현상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시대가 운데 확장되고 심화되는 이기주의를 읽어내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지민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학부를 졸업했다. 서울대 CCC에서 순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은혜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다.

캠퍼스 리더로 산다는 것은

황은주 (광운대학교 화학과 학부생)

내가 대학생이 되었던 해에 가족 중 주일성수를 하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신앙생활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성도들 간의 불화로 영문도 모른 채 교회를 자주 옮겨 다녔고, 공동체에는 마음 붙이기가 어려웠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당연하지만 믿음의 이유를 묻는 말에는 얼버무리기 바빴다. 근근히 살아가던 나의 삶에 켄데이 크리스천으로서의 벽을 부수고 하나님께 다가갈 용기를 얻었던 것은 JDM(예수제자운동) 청소년 수련회에서였다. 처음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그분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닌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함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누적되던 작은 불씨 같은 마음은 본격적으로 모임을 시작하였을 때 발화하게 되었다.

예수제자운동은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첫 번째 공동체였다. 명칭 그대로 예수 닮기 원하는 자들이어서 그런지, 죄인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에게겐 신기하기만 하였다. 지체가 리더와 간사님에게서 받는 사랑은 순도가 높았다. 그래서 나도 그 깨끗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리더가 되기 위해 받은 1년간의 디모테 훈련, 피로와 눈물로 얼룩진 시간이

었다. 웬만하면 6시간도 자지 못했고, 밀려드는 학교 과제와 훈련 과제에 허덕였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나의 죄성과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죄를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너무나도 필요하고 값진 시간이지만, 막상 그때에는 알지 못했던 것 같다. 훈련을 수료하고, 나는 내가 양육할 한 영혼을 기다렸다. 계속 기다렸지만 1년간 나타나지 않았다. 캠퍼스의 지체는 모두 스쳐갈 뿐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점점 더 간절해졌다. 리더로서의 자신감과 잃어버린 영혼을 진심으로 구하였다. 내가 느낀 것을 전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그 다음 해, 나는 자격증 공부 등의 계획으로 휴학계를 내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많은 수의 새내기들이 모임에 찾아왔다. 새내기 중 어떤 한 지체를 누가 맡아보겠냐는 간사님의 말에 생각도 않고 손을 번쩍 들었다. 그렇게 모임 4년 차에 첫 지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준비되었어도 막상 쉽지만은 않았다. 세상에 상처가 많고 여린 마음을 온전히 품어주기에 나는 한낱 인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법까지 제자들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원하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게 거짓말을 해도 사랑스러웠고 도망쳐도 놓고 싶지 않았다. 보이는 성경 말씀마다 그 지체에게 전해주고 싶었고, 힘들어할 땐 함께 눈물 흘렸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보실 때에 이렇게 느끼셨을까? 한낱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깊고 넓은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겠지만, 아주 조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순간들이었다. 알고 나니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더욱 크고 놀랍게 보였다. 지체가 없어 절망스러웠던 기간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리더로 단련되기까지 기다려 주신 시간이었던 것이다.

지체와 함께하는 그해 여름, 수련회에서 나는 한 가지 사인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맡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느껴본 적 없는 기분에 당황하였지만, 이내 조원들과 당일 되뇌었던 한 마디가 떠올랐다. 무조건 순종. 주님 내게 무엇을 시키실지 알 수 없지만, 무엇이든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리 기도하니 저항할 마음도 들지 않았고, '순종' 그 두 글자가 되려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나는 2학기 예정이었던 모든 계획을 버리고 캠퍼스 위커가 되었다. 녹초가

되도록 지쳐도, 통장에 돈 한 푼 없어도 괜찮았다. 때로는 넘어지고 일이 속수무책으로 꼬여도 무탈했다. 그 시절 나는 "(우리 욕심을) 포기하면 편하다.", "그냥 하자."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나에게서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보살피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하나님과 함께한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교회 가기 싫다고 떼쓰던 막내 동생을 모임으로 이끌어 주셨다. 주님께서 내게 어울리지 않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나는 그 감사함 때문에 행한다.

무조건적 순종. 그것이 이루어지면 가시밭길 위를 걸어도 평온한 삶으로 이어진다. 순종하는 자의 발길을 지켜주시는 이가 있으니 더 이상 작은 생채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미래와 눈앞의 섬김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년들에게, 진정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할 때에 더 크게 주어진을 이야기 해주고 싶다. 꼭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같은 일을 겪더라도 더 깊이 누리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려놓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짐을 짊어지는 자의 힘을 덜어주시는 분이다. 미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섬김이 고민될 때는 일단 부딪혀 보라는 말을 건네어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계획하셨음을 알기에 더욱 그렇다. **FAITH & LIFE**



글쓴이 황은주



광운대학교 화학과(21학번) 학부생이다. 캠퍼스 선교단체 JDM(예수제자운동)에서 5년째 활동하며, 현재 광운대학교 리더로 섬기고 있다.

His Plan

최한나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대학교 입학이 인생의 목표였던 나는 막상 대학생이 되고 나니 극심한 공허함에 시달렸다. 입학 후 노는 것도 잠시뿐이었다. 기숙사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웠던 대학 입시를 생각하며 앞으로 취업, 결혼, 자녀 양육 등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 앞이 캄캄해졌고, 그것 모두 고통과 허무의 반복일 것 같았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허무가 반복인 삶을 살라고 사람을 만드신 것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만 드리던 나는 이 물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청년부에 나가기 시작했다.

청년부에서 또래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내가 가진 근본적인 질문들을 했다. 또, 캄보디아와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다. 한국에선 입도 뺏기지 않았지만, 선교하러 갔으니 전했던 복음을 통해 선교지의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졌다. 복음을 전하며 느낀 순수한 기쁨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었다. 이 사랑 하나로 삶의 모든 어려움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봉사활동, 인턴 선교사 등 여러 진로를 두고 고민하며 지원했다. 세 곳 모두 서류에 합격했는데, 인턴 선교사 면접이 가장 먼저 잡혔고, 합격하여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다.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닐 때 중국어를 배우다 9등급을 받고 포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어려움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걱정 속에서 졸업식도 가지 않은 채 중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미국인 선교사님들과 한 팀이 되어 멘토링을 받고, 캠퍼스를 돌며 친구들을 사귀고 복음을 전했다.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친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또 하러 간 일이 선교사 보니, 내 마음을 터놓고 도움을 구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는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기에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완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경험했다. 돈도 없고 좋아하는 옷 한 벌 사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깨닫고, “하나님, 저 선교사 체질인 것 같아요. 저를 제일 힘든 사역지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중국에서 선교사가 될까, 미국으로 신학대학원을 갈까 고민했으나 큐티 중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이 들어 1년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선교지에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고, 직업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던 나는 무얼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후 나는 내 삶에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 일을 맡게 되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모를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모가 교회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보육교사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고, 일하면서

“복음이 일터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후 복지가 좋은 게임 회사에서 데이터터를 정제하는 일을 하며 편안함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하셨다. 게임 회사의 계약이 끝난 후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길이 내 길이 아님을 깨닫고 시험 준비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눈치가 보여 빨리 취직해야 한다는 마음에 닥치는 대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탈락하며 망연자실한 심정이었다. 그때 나는 선교를 다녀온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 관심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른 친구들처럼 졸업 후에 선교를 가지 않고 바로 취업 준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밀려왔다.

그렇게 갈 곳이 없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끌려가듯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이 일을 오래 할 생각이 없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전의 ‘중간 단계’라 여겼다. 요양원에서 2년 반은 인간의 연약함, 외로움, 죽음, 고통과 가장 가까이 마주했던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인간은 어차피 다 아프고 죽는구나”라는 생각에 압도되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들 그 자체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분들을 향한 순수한 애정이 커졌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지 않아도,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렵פות이 느꼈던 것 같다.

요양원은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 중고령층의 여성인데,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보며, 지금 20

대 후반,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더 잘 살도록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다. 대학원에 입학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으나 일을 하면서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나님, 여기 붙여 주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게요”라고 기도했고, 내 생각엔 아쉬웠던 시험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길에 들어섰지만, 매일 쏟아지는 과제와 논문,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졸업 후엔 뭘 해야 하지?”하는 불안감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계획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이곳에 둔 것은 정확하고 완벽한 나의 뜻이다.”라고 잊을 만하면 여러 통로를 통해 말씀하신다.

나를 제일 잘 아셔서 그런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면 안 되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 재밌으신 하나님. 오늘도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내 인생은 앞으로도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된다. **FAITH & LIFE**



글쓴이 최한나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가족발달 및 노년학 연구실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를 졸업한 후, 인턴 선교사로 중국을 다녀왔다. 이후 다양한 일을 했다. 현재 분당 지구촌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가버나움’은 어디인가?

강진구 (고신대학교 성경학과 교수 / 영화평론가)

미국을 바라보는 한국 그리스도인의 시선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IG에너지기술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되었다. 비록 7일 만에 한 명을 제외한 근로자 전원이 풀려나 특별전세기 편으로 귀국하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이 할 수 없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짓는 전문기술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몰아 체포하는 일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한 역대급 단속이었고, 쇠사슬에 묶여 버스를 타는 한국인의 체포 장면을 보는 한국인들은 과연 트럼프의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동맹으로 생각했던 그 미국이 맞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절 혼란과 절망에 빠진 한국인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근대문명을 전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6.25를 겪으면서 한국은 미국 정부와 교회의 지원 속에서 폐허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근대화의 시작과 기독교의 전래 시기가 비슷했고, 한국 사회의 발전 역시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¹⁾ 한강의 기적과 교회의 성장을 얘기할 때 미국을 빼놓고서

는 얘기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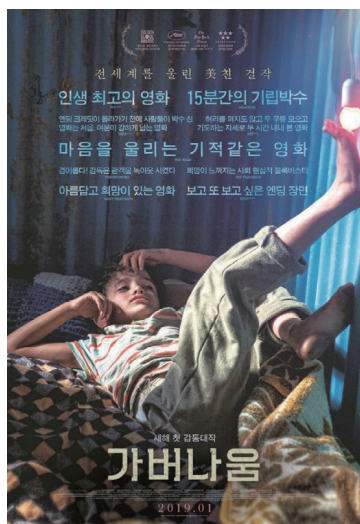
이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미국은 선교사를 보내 주고 조국을 지켜준 고마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부요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입고 사는 나라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었다.

그런데 보수적인 기독교 이념을 내세운 트럼프 2.0시대의 미국은 불안하기만 하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현대사에서 세계평화와 번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온 기적과 같은 행적이 과거의 일로만 여겨지게 될 것 같은 불안이 밀려들어 오기 때문이다. 나딘 라바키 감독의 영화 <가버나움>(2019, Capernaum)은 사랑과 우정 그리고 신뢰의 가치를 잃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은 영화다.

무책임한 부모를 고소한 12살 아들

레바논 빈민가에서 생활하는 자인(자인 알 라피아)은 자신의 출생일도 모른 채 일곱 식구와 살고 있다.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있지만, 여동생 사하르(세드라 이잠)와 함께 길거리에서 주스도 팔고 상점에서 배달 일을 도우며 집안 생계를 돕고 있다. 자인의 부모는 어린 아들이 약국을 돌며 사온 약품에서 항정신성 약물을 물에 녹이고는 옷가지에 묻혀 교도소 재소자들에

1) 경제성장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 교수들이 참여하여 쓴 책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손봉호, 조성표 편저, 에듀커뮤니케이션, 2012)를 참조하였다.



〈가버나움〉
(라바키 감독, 2019)

게 몰래 넘기는 일을 할 뿐 정상적인 가족 생계는 자인이 모두 떠맡고 있다. 자인은 부모가 여동생을 상인에게 돈을 받고 시집보낸 것에 대해 분노하고 집에서 나와 거리를 떠돌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관객들은 이 집안이 단순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자식을 돌보는 일에는 무책임한 부모에 관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식을 낳을 줄만 알았지 키울 줄 모르는 무책임한 부모와 어떤 돌봄도 없이 거리에서 자란 어린이의 삶 속에서 우리는 되풀이 되는 죄와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는 까닭이다. 관객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자인은 부모를 법정에 고소한다. 왜 부모를 고소하는지 묻는 판사를 향해 자인은 지금까지 어떤 영화에서도 들어본 일이 없는 말을 남긴다.

“태어나게 했으니까요. 이 끔찍한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건 그들이니까요.” 이 영화의 제목이 ‘가버나움’인 이유가 납득되는 순간이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도시 가버나움

영화 〈가버나움〉은 기독교 영화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성경의 내용이나 가치관을 명확히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이 비판하는 인간과 세상의

모습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 주요 사역지였던 갈릴리 인근의 ‘가버나움’이란 도시에 대한 예수님의 언행을 알고 보았을 때 비로소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의도하는 바를 읽어낼 수 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등 다섯 제자를 부르셨고(마 4:13, 18-22, 9:9), 백부장의 종과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네 사람이 메고 온 반신불수 병자 등에게 여러 이적을 행하셨다(마 8:5, 14, 9:1, 요 6:55-59). 마태복음은 ‘본 동네’(his own town, 마 9:1)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가버나움이 그 누구의 장소도 아닌 ‘예수님의 동네’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가장 많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목격된 도시인만큼 ‘예수님의 동네’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뜻밖에도 가버나움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은 도시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마 11:24). 영화 〈가버나움〉은 가장 기적을 많이 목격한 도시가 책망의 대상으로 변한 상황을 현대적인 은유로 묘사하고 있다. 나딘 라바키 감독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 레바논의 현실이 성경의 ‘가버나움’과 다를 바 없음을 그렇게 묘사했다. 그런데 영화를 본 우리에게 남은 생각거리는 한 가지 뿐이다. 지금 가버나움은 어디일까? **FAITH & LIFE**



✍ 글쓴이 강진구

고신대학교 성경학과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이다. 극동방송의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을 통해 기독교 영화 전파에 힘을 쏟으며 대중강연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선교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죽음과 종교〉,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등이 있다.

소비주의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독일 출신 안드레아스 구르스키(Andreas Gursky)의 사진은 쇼핑센터, 아파트, 호화 유람선, 최신 고층건물, 산업 구조물 등 현대 사회의 풍경을 주로 모티브로 삼는데 작품 속 이미지들은 가로세로가 반복되며, 이는 마치 미니멀리즘의 격자 패턴이 현실에 그대로 이식된 것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규격화된 '똑같은'(sameness)이 무한 질주의 경쟁을 펼치는 물질 중심주의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99센트, C 프린트, 207x336cm, 1999

〈99센트〉(1999)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99 Cents Only Store' 매장을 소재로 한 것으로 그해 '타임지'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진 100점 목록에 포함되었다. 화면에는 초콜릿, 음료, 땅콩버터, 치약 등 잘 알려진 브랜드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선반을 가득 채운 상품들의 인공적인 광택과 화려한 색채는 소비의 욕망을 암시하며,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환영을 만들어낸다. '99센트'라는 저렴한 가격은 글로벌 생산 사슬

(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저가 노동)에 기반하며, 이는 사실상 '자국민'을 위한 저가 소비 혜택의 이면을 보여준다. 즉 자국민의 편의와 소비가 글로벌 차원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99센트〉에 가득 찬 상품들은 현대 소비주의가 만들어낸, 기이하지만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작품 속의 반복적인 구조와 디테일은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 자본과 소비 시스템을 연상시키며, 세련되게 포장된 상품 이미지는 세속적 열망을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99센트〉는 모든 상품을 균일한 가격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외형적인 평등일 뿐 그 뒤에 숨겨진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격차, 그리고 상품의 일회성이 만들어내는 환경 문제의 상흔을 가려버린다. 이 배타적인 경제논리는 기독교 정신을 뒷받침하는 '평등'과 '이웃 사랑'을 잠식하는 위협이며, 이 작품은 물질적 풍요라는 신기루를 통해 그 은폐된 위협의 그림자를 날카롭게 겨누고 있다.

이러한 배타적 경제 논리는 외적인 영역뿐 아니라, 현대인의 내적인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 기독교적 가치를 위협한다. 이 작품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을까? 쇼핑물은 단순히 물품 구입을 위해 찾는 장소가 아니다. 현대인은 쇼핑에 나설 때 필요한 것의 구입 외에도 영적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쇼핑을 즐긴다. 만족을 모르는 욕망은 소비에서 영적 만족과 자아의 만족을 찾으려 만든다. 소비지상주의에서

는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 된다. 고딕 양식의 성당이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관점을 가진 봉건사회의 상징이었다면, 쇼핑몰은 세속화된 세계에 등장한 소비자 문화의 상징이다. 여기에는 고도의 상업주의와 불굴의 환상이 독특하게 뒤섞여 있다. 데이비드 웰스(David Wells)는 <윤리실증>(Losing our Virtue)에서 소비의 유사 종교적 성격, 즉 상품은 현실적인 성전인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로서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이 손에 넣게 된 구원을 증거하고 중재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나트랑, C 프린트, 2004

“내 이미지는 항상 장소의 해석이다”라는 안드레아스 구르스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촬영한 장소에는 모종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나트랑>(2004)은 베트남의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대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가구들은 주로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는 저가 대량 생산품이다. 이 작품은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서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자양분으로 삼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선진국 소

비자의 '저렴한 상품' 선호 심리가 다른 국가의 노동 조건과 윤리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나트랑>의 이미지는 반복적이고 질서 정연해 보이지만 동시에 개개인의 정체성이 희석된 인물의 모습에서 노동의 소외와 구조적 불의를 엿볼 수 있다.

구르스키 작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포토샵 리터칭, 초고해상도와 같은 디지털 합성 기술은 대상의 객관적 재현을 넘어, 소비 자본이 만들어낸 초-실재(Hyper-reality)의 세계를 구현한다. 이는 상품의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환영(illusion)이나, 노동 현장의 소외를 더욱 극대화하고 인위적인 통제를 암시하는 요소로서 풀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낭만주의 미학에서 '숭고'(Sublime)는 신(神)이나 자연의 무한한 힘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뜻했다. 과거의 '숭고'가 신성하고 초월적인 대상에서 비롯되었다면, 구르스키의 숭고는 거대하고 세속적인 소비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작가는 <99 센트>를 통해 현대 사회의 소비 풍경을 새로운 숭고함의 대상으로 제시한다. 완벽하고, 질서정연한 '테크노-경제적 숭고'(Techno-Economic Sublime)가 그것이다. 이는 항구적인 가치가 어떻게 일시적인 욕망과 물질로 전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상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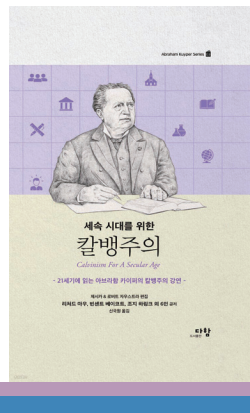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카이퍼의 <칼뱅주의 강연>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양성만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 서양철학)



<세속 시대를 위한 칼뱅주의> / 제시카 & 로버트 자우스트르 편집 / 신국원 번역 / 다함 / 2025.

130년도 더 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칼뱅주의 강연>을, 카이퍼의 나라 네덜란드 사람도 아니고 이 강연의 청중이었던 미국인도 아닌 한국인이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브랫(James Bratt)은 이 책의 서문을 쓰면서 비슷한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칼뱅주의 강연>은 여전히 온 세계를 대항함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취해야 할 하나의 모델을 제공해 준다.” 시대와 상황이 달라도, 또 카이퍼에게 여러 오류와 실수가 있어도 그는 여전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 동의하는 6명의 저자는 카이퍼의 <강연>의 6개의 강의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해설하였다. 첫째, 카이퍼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둘째, 카이퍼주의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셋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더해, 인종에 관한 카이퍼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다룬 글, 그리고 카이퍼의 네덜란드어로 작성된 강연 원고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다룬 글, 마지막으로 신국원이 쓴 “칼뱅주의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까지 해서 이 책은 총 9개

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들은 동일한 구조로 글을 쓰면서도 카이퍼의 강연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이나 또 카이퍼와 본인 사이에 두는 거리는 저마다 달랐다. 저자들은 자신들이 카이퍼주의자라고 기꺼이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카이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베이코트(Vincent Bacote)는 ‘카이퍼와 인종’을 쓰면서 카이퍼가 인종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카이퍼의 위대성에 감사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죄와 타락의 영향을 그에게서도 감지하는 것이다.

이 짧은 서평에 6개의 주제를 다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 채플린이 쓴 ‘카이퍼와 정치’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카이퍼가 칼뱅주의 근본 원리를 각 영역에서 어떻게 확장해 나갔는지, 그 내용을 북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발전시키고 적용했는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무엇인지를 맛보기로 하자.

카이퍼의 셋째 강연 ‘칼뱅주의와 정치’ 논의를 채플린은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부터 풀어나간다. ‘영역 주

권'이란 교회, 학교, 기업 등의 다양한 사회 기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본질과 목적을 가지며, 따라서 국가나 정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의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사상이다. '영역 주권' 사상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출발한다. 국가가 학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든 학교든 하나님께로부터 권한과 사명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국가가 학교를 지배할 수 없고 학교는 독자적인 권리를 향유하며 학교의 고유한 규례를 따라 움직여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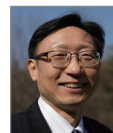
죄가 없었다면 칼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죄로 말미암은 불순종과 폭력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국가 제도를 세우고 칼을 기반으로 한 기계적 통치를 허용하셨다. 카이퍼는 국민의 주권에 기반한 계약설을 비판하는 한편, 한 나라의 국가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에서 성립하여 그 나라 고유의 정체성과 의지를 구현하는 신비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국가주권설도 거부한다. 카이퍼의 이런 지침을 북미의 카이퍼주의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했는가? 채플린은 이 원칙을 따를 때 종교다원주의 사회가 귀결된다고 본다. 만일 국가가 권력으로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을 다스릴 권한이 없고, 그래서 각 사회 기관들이 자치권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카이퍼는 국가 자체에도 그 배경에는 일정한 종교가 숨겨 있는 것처럼 다른 사회 기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사람의 사상과 행동은 그 사람의 세계관, 그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따라서 그가 품은 세계관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기관이 어떤 목표로 어떤 원칙을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가 달라지게 된다. 이때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 교회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카이퍼가 선택한 해결책은 기둥화(pillarization)였다. 그것은 동일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세계관에

입각한 기관을 세우고, 이 세계관에 따라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카이퍼는 이 원칙을 따라 자유대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정당, 기독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북미의 카이퍼의 후예들도 이 원칙을 따라 기독교 학교 연합과 대학 연합, 캐나다 기독교 노동협회, '공공정의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Public Justice), '공공정의 센터'(Center for Public Justice) 등을 만들었다. 채플린은 이 원칙은 특정 문화적, 민족적 특성에도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이 원칙을 젠더 정체성이나 인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논쟁거리가 된다고 진단한다.

마지막 장에서 신국원은 우리나라에서 칼뱅주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실례를 기독교 세계관 운동, 기독교 교육과 학교 운동, 기독교 시민운동에서 찾을 수 있지만 한국의 칼뱅주의 교회조차 신앙을 삶과 통합하는 실천을 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칼빈주의 강연>부터 읽어야 할 것이다. 박영남, 서문강, 김기찬, 그리고 박태현의 네덜란드판 번역본이 있는데, 네덜란드어 원고를 영어로 번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듯이 한글 번역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듯하다. FAITH & LIFE



글쓴이 양성만

우석대 명예교수이다.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 시절부터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참여했고, 고려대에서 서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최근 은퇴할 때까지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철학)로 재직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이사 및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IVP, 공저)가 있고, 번역서 마이클 고헨(Michael Goheen)의 <창조, 타락, 구속>(IVP), 캐리 제임스 클락(Kelly James Clark)의 <기독교 철학자들의 고백>(살림) 등이 있다.

건강한 교회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천안아산주님의교회’는 23년 전에 담임 목사 가정으로만 개척된 교회로 바른 세계관을 가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성장해 온 교회이다. 교회의 핵심가치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이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기본적인 틀로 특정한 조직(Committee)보다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Community)

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소그룹 중심 사역은 바른 세계관을 갖추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그룹 사역에는 신실한 소그룹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그룹을 리더를 세우는 훈련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성경 암송과 묵상 훈련과 기도 훈련에 주안점을 두면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기관은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역동적인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각 교육기관들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해당 부교역자들이 교육기관과 교구를 하나로 연결해서 섬기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해당 교역자가 부모와 자녀들을 함께 섬기므로 자녀들과 부모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면서 돌보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서는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양서들을 권장하면서 훈련하고 있다. 또한, 지성적인 접근을 넘어 영적인 능력을 얻고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한 시간 기도하기”를 격려하면서 새벽기도회와 금요일 밤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함으로 다음 세대 선교와 이주민 선교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근 학교에 ‘스쿨 처치’를 세우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교회 주변 인근 대학교에 이주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자 대학 동아리 GSC(Global Students Community)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를 통해서 교회로까지 인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아산주님의교회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바른 세계관을 가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성장해 왔고, 이제 건강한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윤석

천안아산주님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인하대, 개신원과 총신신대원, ACTS(Th.M)를 졸업하였고, 사이판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천안아산주님의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에 속한 교회로 2002년 9월 7일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창립하였다.

천안아산주님의교회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소감문

‘확신반’을 통한 주님의 선물



천안아산주님의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확신반’에 하기 전까지 나의 삶은 다소 무질서했다. 결혼 후 낯선 아산으로 이사하며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의 질서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교회와 좋은 공동체를 찾는 시간은 의미 있었지만, 예전처럼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확신반’을 통해 내 신앙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다.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었고,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더욱 풍성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매주 진행된 말씀 암송과 직접 말씀을 적는 시간이 큰 도전이 되었는데, 외웠던 말씀이 생활 속에서 떠올라 마음을 붙잡아 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다. 손으로 쓰고 입으로 읊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짐을 느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삶의 질서임을 배우며, 신앙 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려는 결단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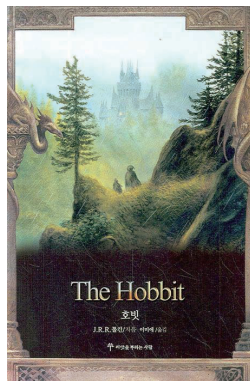
‘확신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질서와 믿음의 성장을 경험했다. “침을 얻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낭비되던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며 배운 것들을 실천하겠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최윤석 담임목사님과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FAITH & LIFE**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성도이다.



〈호빗〉이 선물한 교훈과 지혜*

신은수 (동탄기독교학교 고등학교 3학년)



〈호빗〉(The Hobbit) / J. R. R. 톨킨 / 이미애 옮김 / 씨앗을뿌리는사람 / 2012.

〈호빗〉은 안락함을 즐기던 골목쟁이네 빌보가 마법사 간달프와 열세 명의 난쟁이들과 함께 용 스마우그에게 빼앗긴 보물을 되찾기 위해 떠나는 모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호빗〉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물질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보물은 〈호빗〉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소린은 성에 산처럼 쌓여 있던 보물에 눈이 멀어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했다.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돈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 결국 보물을 탐내던 소린은 다섯 군대 전투에서 창에 맞아 죽게 되었다. 권력과 재력을 한번 맛보고 돌이킬 수 없게 되면 그 최후가 비참함을 소린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욕심내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소린과 바르드는 모두 용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되찾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지만, 둘에게는 차이점이 있었다. 바로 보물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의 차이였다. 소린은 보물을 독점하고 소수에게만 이를 나눠주려고 했지만, 바르드는 전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전쟁을 도운 모든 종족에게 보물을 나누어 주었다.

탐욕스러운 용 스마우그는 그저 보물을 쌓아두기만 했고, 소린은 보물을 나눠주지 않고 자신만이 독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바르드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보물을 나눠주었다. 결국 스마우그와 소린은 죽게 되었고, 바르드는 용을 죽임으로써 막대한 영광과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이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둘째, 우리는 공급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호빗〉이라는 책의 내용만 보면 어떻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를 떠올릴 수 있는지 의문을 가

* 이 글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좋은교사운동,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기독교 고등학생 독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신은수 학생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본 독서대회는 지난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기독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선정 도서는 중등부는 〈천로역정〉(존 버니언)과 〈사자와 마녀와 옷장〉(C.S 루이스), 고등부는 〈호빗〉(J.R.R. 톨킨)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C.S. 루이스) 등 4권이었고, 이 중 한 권을 선택하여 독후감을 쓰는 공모전이었다.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추측해볼 수 있다. 난쟁이들이 여정을 시작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소린의 보물이었을까? 그것은 소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산 아래 왕으로 있던 시절 모아둔 재산이다. 세습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소린이 보물을 취득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나 그들이 재산을 축적해두지 않았더라면 소린은 용 스마우그에게 빼앗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걸 되찾으려는 여정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한 번 우리에게 적용해보자.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하시는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모두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창조와 타락, 구속과 부활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키워드다. 그중 이 이야기는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린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조상들의 보물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은혜 덕분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는 모태 신앙이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교회 반주로 섬기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그럴 때마다 대답하지 못하기 일쑤였다. 빌보는 어째서 모험 전과 후로 인생이 달라졌는가? 나는 왜 결단한 이후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것

은 바로 실천의 유무에 있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다. 나는 노력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그런 의구심을 품어왔던 것은 전부 실천하려 하지 않고 나를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과거의 나의 행동이 문제였다.

나는 빌보가 본받을 점이 많은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처음에는 빌보도 스스로의 의지로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모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고 위기를 극복했다. 그는 큰 변화를 겪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보는 간달프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자네는 예전의 그 호빗이 아니라네.” 나는 내가 이러한 말을 듣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제는 실천할 차례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예전의 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좇지 않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생각해야 한다.

〈호빗〉은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귀중한 거울이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제 나도 빌보처럼 변화하고 싶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험을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빌보처럼 나도 언젠가 “너는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야”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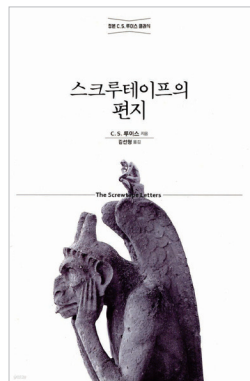


 글쓴이 신은수

기독교 대안학교인 동탄기독교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재학 중이다. 입시를 앞두고 이런 대회에 참가해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웃음에 관한 생각*

이은유 (오디세이학교 1학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 C.S. 루이스 / 김선형 옮김 / 홍성사 / 2018.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알고 읽게 되었던 건 일 년 전, 봄이었다. 다시 계절이 돌아온 지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는 나는 그때보다 더 많고 넓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그것을 글로 풀어놓으려고 한다.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이다. 내 추측으로는 마계에서 명성이 꽤 자자한. 뽀빠지는 그런 스크루테이프의 조카이자 새내기 악마이다. 그리고 각각의 악마들이 맡은 사람을 환자라고 한다. 악마들은 ‘원수’를 증오하는데 여기서 ‘원수’는 ‘그리스도’이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이런 바탕에서 쓰인 책이다. 줄거리는 한 환자의 생사에 관한 기록. 그 환자에게 유혹하는 뽀빠지. 그런 뽀빠지가 자신의 삼촌인 스크루테이프와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한마디로 ‘악마가 인간을 유혹으로 요리하는 방법’이다.

나는 읽으며 나의 웃음에 관해 생각했다. 내 주위에 친구들이 모두 우울할 때면 나는 억지로 웃어 보인다. 은은하게 주변을 밝힐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 그렇고, 내부적으로 삶에 휘말리치는 고통에도 웃음을 지어 보이려고 한다. 골짜기에 가장 깊게 떨어졌을 때 특히.

학교에서 내 속은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전반적으로 각양각색의 종교가 섞여 있지만, 어찌 되었든 주류는 무신론자이다.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친구가 몇 있지만 하지만 믿고 의지할 정도까진 안 된다. 덧붙여 세상엔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반대의 부류가 있다. 여러 종교를 포용하는 사람 말이다. 이들을 ‘다원주의’라고 한다. 불가항력의 부분인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마주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안다. 그리고 충돌하더라도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을 알아야지 어긋난 부분을 집어주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 이 글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의회, 좋은교사운동,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기독교고등학교 독서대회’에서 ‘고등부 최우수상’을 받은 이은유 학생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본 독서대회는 지난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기독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선정 도서는 중등부는 〈천로역정〉(존 버니언)과 〈사자와 마녀와 옷장〉(C.S. 루이스), 고등부는 〈호빗〉(J.R.R. 톨킨)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C.S. 루이스) 등 4권이었고, 이 중 한 권을 선택하여 독후감을 쓰는 공모전이었다.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 맘을 굳게 먹어서 해결되는 문제 또한 아니다. 이해하려면 들을 때 분별해야 한다. “이 사람이 말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라고 질문하면서, 이 과정을 많이 반복하면 머리에 과부하가 와서 동작을 정지한다. 동작을 정지하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영혼 없는 웃음 짓기다. ‘웃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난 ‘웃음’이라는 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밖에서 이 웃음이 영원할지 몰라도-‘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안 어울리지만-집에서는 다르다. 소중한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 쉬워져 영혼 없는 웃음을 짓고 난 후 난 침대에 누워 마음을 추스른다. 눈을 감고 뜨면 아팠던 상처들은 아물어진다. 웃음은 감정 참기에 아주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참았던 감정은 언젠가 터질 위험이 있다. 모든 감정은 웃음으로 치환할 수 없기에 특히 주의도 해야 한다. 얼굴에 생각이 잘 드러나는 나는 특히 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1장에서는 웃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인간들이 웃음을 터트리는 이유는 기쁨, 재미, 적절한 농담, 경박함 크게 4가지로 분리한다. 기쁨은 ‘음악’ 같은 것이다. 천상의 경험인 리듬을 타고 의미 없이 고조되는 것이다. 악마들은 이에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다. 재미는 기쁨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 단어로 감정의 거품 같은 것이다. 용기나 자비 같은 선한 감정들을 조장한다. 부조리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깨닫게 만드는 적절한 농담보다 훨씬 유망한 분야이다. 적절한 ‘성’에 관한 농담을 스크루테이프는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성에 관한 농담이 많은 부조리를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이런 농담을 즐기는 부류. 성에 관한 말 할 구실이 되기 때문에 부조리를 양산하는 부류. 전자는 악마들이 좋아하지 않고 후자

는 수치심을 파괴하기 때문에 악마들이 좋아한다. 하지만 악마는 환자(전담 인간)의 소속은 모르게 해야 한다. 스크루테이프가 “뛰니 뛰니 해도”라는 수식어를 붙여 극찬한 웃음이 있다. 바로 경박함. 마치 미덕이 우스운 양 떠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경박함은 다른 웃음처럼 위험 요소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기쁨과 한참 떨어져 있는 것도 모자라 지성의 날을 무디게 만들고 그렇다고 함께 웃는 사람에게 애정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 읽고 나서 내가 어떤 경위로 웃음을 짓는지 생각해 보았다. 머리가 안개로 새하얗게 변한 것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허탈함이 몰려왔고,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서 나는 악마들이 싫어하는 웃음-진짜 웃기고 재미있고 감동할 때만-웃어보기로 했다. 실제로 친구가 아재 개그를 했는데 그 내용이 “김소월 시인이 수능 때 (가)형만 하는 이유가 뭘 줄 알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이었다. 진짜 웃기고 어이없어 입꼬리가 썰룩거렸다. 참고로 난 아재 개그-난 언어유희라고 한다.-를 좋아한다. 폭소는 수업 시간이 끝나고 터졌다. 일주일간 반복된 말인데도 들을 때마다 웃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은 적도 있다. 앞에서 말한 상황에 스크루테이프의 개념을 상기해서 이용해 본 적은 아직 없지만 또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이용해 보려고 한다. 내 도전이 헛되지 않게 내가 노력할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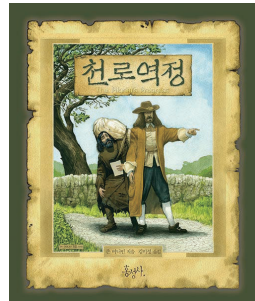
글쓴이 이은유



오디세이학교 1학년(민들레)에 재학 중이다. 한국의 C.S 루이스가 되고 싶은 소녀이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조지 워싱턴 카버를 닮고 싶다.

말씀과 믿음으로 뿌리내리는 나무가 되자*

신예강 (우전중학교 3학년)



〈천로역정〉 / 존 버니언 / 김미정 옮김 / 홍성사 / 2019

예로부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뿌리의 깊이보다 눈에 보이는 성장만을 더 추구하고 생애보다는 경쟁을 더 부추긴다. 그러다 보니 잎만 무성하고 뿌리가 알아 바람에 흔들리기만 하여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거나 쓰러지고 만다. 좁은 땅에서 영양분과 햇빛을 더 많이 얻으려 경쟁하다 보니 뒤쳐지는 나무 또한 볼 수 있다. 이런 나무들의 모습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다. 내면의 중심을 다지기보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런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쉽게 좌절하며 포기한다.

하지만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로 나아간다. 세상 사람처럼 겉만 멋있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면을 다져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닥치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버틴다. 〈천로역

정〉에서도 고난과 역경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를 볼 수 있다.

〈천로역정〉 속 멸망의 도시 속에 살아가던 ‘크리스천’은 성경을 발견한 후 하나님의 길을 찾아 떠난다. 천상의 도시로 향하는 ‘크리스천’의 여정에는 많은 역경과 시련, 유혹이 있었고 심지어 이에 굴복할 뻔한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끝내 천상의 도시에 도착하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쩌면 멸망의 도시처럼 서서히 멸망의 길로 치달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한다며,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겨야 한다며 세상의 수많은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밀고, 그 기준을 도달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는 사이 사랑은 점차 잊혀가고 세상에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해진다. 성적으로 방탕해지며 일탈을 일삼기도 한다.

이런 지금 세상의 모습은 〈천로역정〉 속 ‘허영의 시장’과도 매우 닮았다. 마귀가 세운 이 ‘허영의 시장’에

* 이 글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좋은교사운동,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기독교중고등학생 독서대회’에서 ‘중등부 최우수상’을 받은 신예강 학생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본 독서대회는 지난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기독교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선정 도서는 중등부는 〈천로역정〉(존 버니언)과 〈사자와 마녀와 옷장〉(C.S 루이스), 고등부는 〈호빗〉(J.R.R. 톨킨)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C.S. 루이스) 등 4권이었고, 이 중 한 권을 선택하여 독후감을 쓰는 공모전이었다.

는 집, 신분, 명예, 정욕, 쾌락, 육체, 보석 같은 상품을 취급했고 매춘부, 사기꾼, 깡패, 도둑 등의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천상의 도시로 향하는 순례자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하기도 한다. 세상에서도 별다를 게 없다. 돈과 외모, 명예를 매우 중시하며,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켜 주는 것들이 판을 친다.

청소년 세대의 '허영'은 더욱 심각하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하고 돈 같은 물질을 추구하며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음란물을 접하며 살아간다. 육체를 밥 먹듯이 하며 거친 성격을 가진 청소년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에 물들기 쉬운 청소년들은 자연스레 세상 친구들을 따라 하게 되고 교회마저 멀리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주변에서조차 "하나님은 없어, 바보도 아니고 교회를 왜 가는 거야?"라며 교회 다니는 친구를 무시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 이런 청소년들 속에서 세상의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았다. 나름 착하게 생활하려 노력했지만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청소년처럼 말과 행동이 거칠어졌다. '세상의 현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것 같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생활을 귀찮아하는 날도 많았다.

내가 이런 것처럼, 다른 청소년들 또한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크리스천'이 가졌던 태도를 생각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사망의 골짜기', 마귀 '아블루온'과의 싸움, '허영의 시장', '다리 없는 강' 등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견뎠다. 유혹에 넘어가거나 옆길로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 이런 '크리스천'의 태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련들을 견뎌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다.

또한 '크리스천'이 천상의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소망'이 동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은 서로가 걸어온 여정을 공유하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찬양하기도 했다. '소망'이 유혹에 이끌려 은광으로 가려고 할 때도, '크리스천'이 강을 건너며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이들은 서로 진실을 일깨워주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나도 교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그 덕분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책을 읽은 후 나의 느낌과 결심을 말해보고 싶다.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고난과 유혹에 마주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책 하나가 여러모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소소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도 열심히 하며 큐티도 매일 매일 하기로 결심했다. 또한 앞으로 만날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결심하고 기도했다. 이 책이 나와 같은 청소년에게 진짜로 은혜의 역사를 알게 되고, 앞으로 걷게 될 '하나님의 길'에 힘이 되며, 서로 돕고 도우며 동행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되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며 글을 마친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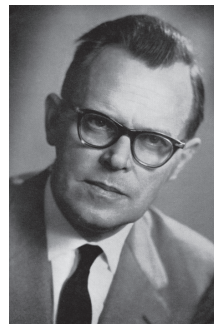
글쓴이 신예강



우전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전주제자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학생이다.

헨드릭 반 리센의 기독교 세계관(2)¹

최용준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교수)



반 리센은 학문의 세 가지 특성을 언급한다. 첫째로 학문이란 ‘체계(system)’이며 나아가 새로운 발견에 ‘개방된 체계(open system)’이고 둘째로 학문적 이론의 기초는 ‘가설(hypothesis)’로서 학자는 이것으로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결국 인간의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법 또는 질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문은 ‘필연성(necessity)’이다. 필연적 일관성이 없으면 학문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²

나아가 반 리센은 학문이 낳은 지식은 사회적으로 볼 때 권력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학문을 응용한 기술은 현실에 대한 지배력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인간이 미래를 더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학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학문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다른 권력에 의해 제한된다면 올바른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실제 삶에서 학문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 가장 불안한 징후라고 지적하면서 학문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는 말 것을 권고한다.³

그렇다면 반 리센이 보는 철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는 도여베르트나 볼렌호브과 같이 철학이란 근본적으로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모든 한계적 또는 궁극적 질문들을 다루는 동시에,⁴ 개별 학문을 연결하고 포괄하는 학문적 고리로 이해한다. 따라서 철학은 저수지와 같이 그 수문들을 여는 순간 각 학문의 모든 기본 질문들이 나온다고 본다.⁵ 나아가 그는 학문과 철학 둘 다 결국 신앙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를 비유적으로 신앙은 뿌리, 철학은 줄기 그리고 개별 학문은 가지라고 설명한다.⁶ 도여베르트도 이것을 자신의 선험적 비판철학 (Philosophy of transcendental critique)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⁷ 반 리센은 철학과 학문이 자충족적이 아니며 종교적 신앙에 의존한다는 도여베르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그도 학문 및 철학과 신앙은 불가분리적이며 이의 통합이야말로 기독교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요 핵심 주제로 본다고 말할 수 있다.

학문이 발견한 법 또는 질서를 반 리센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설명함으로써 학문과 신앙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철학 또한 종교적 뿌리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

1. 본 원고는 필자의 논문 “학문과 신앙 그리고 기독교 대학: 헨드릭 반 리센의 사상을 중심으로”(《한국개혁신학》, 2013, 통권 39호, pp. 187-220)를 요약한 것이다.

2. Van Riessen, *Wijsbegeerte*, 97-98.

3. Van Riessen, *De maatschappij der toekomst*, 146-153.

4. Van Riessen, *Wijsbegeerte*, 12.

5. Van Riessen, *The University and its basis*, 3.

6. Van Riessen, *Wijsbegeerte*, 27-28.

7. Herman Dooyeweerd, *Wijsbegeerte der Wetsidee* (Amsterdam: H. J. Paris, 1935-36),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Philadelphia, P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3-58).

시와 피조계에서 드러나는 일반 자연 계시 둘 다 포함한다. 학문이란 이 계시에 대해 인간이 이성을 통해 직관적으로 인식함으로 가능해지고,⁸ 이 인식은 언어에 의해 표현됨으로 학문은 언어로 나타나게 되며,⁹ 따라서 언어가 없다면 어떠한 개념 정립, 나아가 학문 활동도 불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가 성령의 역할도 매우 강조한다는 사실이다.¹⁰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 인간 영혼에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피조계에 숨은 질서들을 발견해 낼 뿐만 아니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 리센에게 있어 학문에는 신앙적 요소가 매우 중요해진다. 즉 신앙이란 인간의 행동을 인도하며, 영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학문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핵심 논제는 학문이 결코 중립적이거나 자율적이지 않으며 신앙의 인도를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이 학문과 신앙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나아가 이 신앙이 어떻게 학문함을 인도해 나가야 할지 이해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동시에 자신이 다른 세계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지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카이퍼와 같이 반 리센도 학문의 영역에 영적 대립(antithesis)이 있음을 지적한다.¹¹ 즉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적인 학문과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학문은 상호 화합할 수 없는 대립성이 있다는 것이다. 후자 즉 세속 학문 또한 엄격한 면에서 종교적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율성(autonomy)'이다. 요컨대 그는 학문이 계시 및 전이론적 직관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학문의 자율성이라는 잘못된 신앙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²

한국의 많은 기독교 대학들도 세속화되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가장 중요한 가치들, 즉 학문과 신앙의 통합 및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비전을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 가지 현실적 장벽들에 부딪히면서 타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철저히 반성하고 학문과 신앙을 통합함으로써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 학자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학문 활동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앞서가신 그분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학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섬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거칠고도 좁은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긴장을 풀지 않고 학문 활동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8. Van Riessen, *Hoe is wetenschap mogelijk?* 26.

9. Van Riessen, *Hoe is wetenschap mogelijk?* 17.

10. Van Riessen, *Hoe is wetenschap mogelijk?* 24-25.

11. Van Riessen, *The University and its basis*, 11.

12. Van Riessen, *Hoe is wetenschap mogelijk?* 26-27.

글쓴이 최용준

한동대 ICT 창업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B.A),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M.Div), 네덜란드 자유대학교(Drs.), 남아공 포체스투름 대학교(Ph.D, 기독교철학)에서 공부했다. 독일 쾰른한빛교회와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동대 학문과신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문> 등이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2025년 제4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복음화의 책임

‘2025년 제4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가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 복음화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주관,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와 로고스경영학회와 명지대학교 교목실 주최, 새로남교회와 천일식품 후원으로 지난 10월 1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지대학교(서울) MCC관(10134호)에서 있었다. 3개의 주제강연과 패널토의가 있었고, 분과별 논문 발표는 대학원생 세션을 포함하여 38편의 논문 발표자 및 해당 논문 논찬자가 함께 이끌어 주었다.

오전 대학원생 세션(10:00~12:00)에서는 김의현(충신대 박사과정)의 “Vanhoozer의 문화 텍스트 해석의 틀을 활용한 SF 소설 <듐> 분석”을 비롯한 박은양(고신대 박사수료), 박영진(침신대 석사과정), 최원종(명지대 박사과정)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오후 첫 번째 순서 개회식(1:00~1:30)에서는, 박지희 교수(기학연 부총무, 건국대)의 사회로, 김태황 교수(기학연 학회장, 명지대 국제통상학과)의 개회 인사, 임연수 총장(명지대 총장)의 환영사, 보스하이젠 판 뷔르켄(Boshuijzen Van Burken,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과대학 교수)의 축사, 김재구 교수(명지대 교목)의 개회기도, 제2회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시상식, 고세일 교수(기학연 연구부학회장, 충남대 로스쿨)의 연구윤리교육, 참석자 전체의 단체 기념촬영이 있었다.

두 번째 순서 주제강연(1:35~3:35)에서는, 기정훈 교수(명지대 공공인재학부)의 사회로, 강유덕 교수(한국외대 IT 학부)의 “자국 중심주의와 기독교적 공동체 이상 : 갈등인가, 재해석인가?”, 김상덕 교수(한신대 평화교양대학)의 “집단정서의 관점에서 본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기독교적 대응” 강연이 있었고, 패널토의자 신원규 박사(한국경제 연구원 책임연구위원)와 서동준 박사(한국성서대 성서학과 강사)의 논찬 및 전체 토론이 있었다. 이어서 소장학자 토론(15:00~15:40)에서는, 안승범 교수(경희대 국어국문학과)의 사회로, 김태룡 박사(경희대 K-컬처스토리연구소 연구원)의 “배타적 자국 우선주의와 K-컬처 팬덤의 대항적 액티비즘” 발표가 있었고, 신정아 박사(백석대 극작과 초빙교수)의 논찬 및 전체 토론이 있었다. 세 번째 순서(4:30~6:00)는 분과별 논문 발표였다. 경제/경영 분과는 조성표 교수(경북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윤선중 교수(전 건국대), 박정윤 교수(영남대 명예교수), 이선복 교수(동서대), 고성훈(경기대). 세계관 분과는 김성원 교수(서울신대)를 좌장으로 최웅준 교수(한동대), 박지연 교수(백석대), 박문식 교수(한남대), 조혜선(러시아 민족대학 박사수료). 사회과학 분과는 이병주 변호사(기독교법률가회 대표)를 좌장으로 홍승희 박사(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철웅 교수(한남대), 배효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찬동 교수(충남대), 김보희 변호사(법무법인 원). 인문학 분과는 김철수 교수(조선대)를 좌장으로 이주리 교수(전남대), 황인경 박사(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조내연 교수(명지대). 강진구 교수(고신대). 학제간 연구(I) 분과는 유재봉 교수(성균관대)를 좌장으로 김희숙 교수(동남보건대), 권유리아 교수(부산외대), 장동



진 교수(헛불트리니티신학대). 학제간 연구(II) 분과는 박희주 교수(명지대)를 좌장으로 안경상 부사장(아퀴녹스프라이빗 에퀴티), 박정위 박사(오타와대), 정가연 교수(명지대). 캠퍼스선교 분과는 안종배 교수(한세대)를 좌장으로 이창원 교수(한양대), 장영창 교수(전 나사렛대), 석준중 선교사(서울대), 김중헌 교수(전 광운대 총장), 박정우 교수(광운대 교육). 공연/예술 분과는 박순자 교수(숙명여대 명예교수), 손문미 교수(California Prestige Univ.) 함정은 대표(Holy Camp), 이신영 객원교수(명지대), 이은형 강사(서울기독대), 김수진 객원교수(명지대), 이선경 교수(명지대)의 발표와 논찬 및 자유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2025년 제4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가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 복음화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 의미에 대해, 김태황 교수(기학연 학회장)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의 확장은 250년의 자본주의 경제 논리를 뒤엎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증폭된 사회적, 역사적, 국제관계적 특성이나 환경 자체만으로는 심각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사회적 트럼프즘(Trumpism)에 대한 비난이 우리의 주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조리한 힘의 논리에 기독교 진리와 세계관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는 모든 참여자에게 자국 우선주의의 도전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기독교 세계관적 연구가 세상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값진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FAITH & LIFE**

2025년 제4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주제 :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복음화의 책임

일시 : 2025년 10월 18일(토) 13시~18시 (대학원생 세션 10시~12시)

장소 : 명지대학교 MCC관 10134호 코이노니아홀

등록 : 120명 참석, 주제강연 2편과 소장학자 강연 및 각각의 토론 포함 38편 논문 발표

2025년 제2회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7월 22일 ~ 9월 30일)

주최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좋은교사운동,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등록 : 180명 신청, 독후감 제출 96명 신청

수상자 : 대상 - 신은수 (동탄기독교학교)

중등부 최우수상 - 신예강(우전중학교)

중등부 우수상 - 김하린(Grace Academy), 김하은 (동탄기독교학교)

중등부 장려상 - 최서윤(동탄기독교학교), 장다교(동탄기독교학교), 전신진(King David School), 우혜민(더샘물학교)

고등부 최우수상 - 이온유(오디세이학교)

고등부 우수상 - 박하빈(King David school), 이예은(새물결기독교학교)

고등부 장려상 - 정하은(King David School), 김하경(동탄기독교학교), 문은민(새물결기독교학교), 백수빈(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30권 3호 (9월 30일 발간)

<신앙과 학문> 30권 3호는 이월논문 1편, 14편의 논문 투고 논문 중, 총 13편 게재.

30권 4호(12월 30일 발간 예정)는 투고된 24편의 논문을 심사 중.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충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생병원 대표이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은퇴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은퇴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신현(고신대 교수), 임춘택(제주대 교수)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 행 위 원 강은정(순천향대 교수),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주) 에이블디벨로프먼트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휴비츠 프로),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윤태형(동서대 교수), 장슬기(별무리학교 교사),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환(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윤현준(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부총무 박지희(건국대 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손화철(한동대 교수, 기술철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신응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손화철(한동대 교수, 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충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원장)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 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VIEW 기독교 세계관 Certificate: 1년 3과목 수강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적 묵상과 설교, 일터와 기독교 세계관: 개별 수강 가능). 한국에서 6월과 11월 집중 대면 수업과 줌으로 이루어진 과정 (view.edu/cert 참고)
- VIEWtiful 인문학 과정: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인문학의 기초 역량을 줌 강의와 녹화본 강의로 제공하는 과정 (VIEWtiful.ca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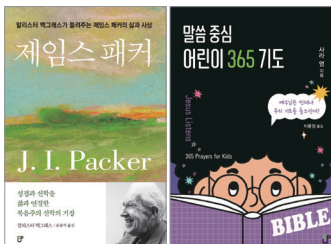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 청소년 하이세 아카데미(진행 중) : 주제는 '기독교세계관', 교재는 <크리스천 씽킹>(유경상, 카리스). 이번 학기는 기독교세계관 원리를 배우고,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한다.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진행 중) : 'C.S. 루이스 읽기'로 진행, 이번 학기는 <고통의 문제>를 공부한다.
 - 대학 강의(진행 중) : 평택대 기독교세계관 MTS(신학석사) : <기독교세계관과 다음세대 교육>, 아신대 : <철학자들이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 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세계관 MTS 과정 4기 신입생 모집(11월 모집 중) : CTC 지도자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든 신학석사 프로그램.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정립, 분별하며, 현장에서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한다.
 - 2025년 기독교세계관교육 지도자 과정 모집(수시 모집) : 기독교세계관 교육 원리와 실재를 위한 '6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 어린이세계관교육 위한 '5기 기독교세계관 감사과정'을 모집한다
- ※ 문의 & 참여 신청: CTC 사무국(010-3673-8439),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
- ※ 2025년도에도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식



〈제임스 패커〉알리스터 맥그래스 지음 | 윤종석 옮김.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들려주는 제임스 패커의 삶과 사상.

제임스 패커는 삶을 위한 신학자로 불린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이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마치 자서전을 쓰듯, 패커가 신학과 영성에 공헌한 많은 부분을 탐색한다. 신학과 목회, 지성과 경건이 분리되어버린 오늘날 그 둘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는 깊은 지혜를 전해준다.

〈말씀 중심 어린이 365 기도〉사라 영 지음 | 이윤정 옮김.

성경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는 365개의 기도문.

아이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심어주며, 가족이 함께 신앙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도구가 될 것이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5년 8월, 2025년 9월)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5년 8월	2025년 9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5년 8월	2025년 9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620,000	620,000	인건비	일반급여	4,855,000	4,855,000
	임원회비	690,000	75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3,800,000	4,122,500		소계	5,255,000	5,255,000
	기관후원금	3,200,000	3,5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웹진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533,395	533,616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397,521	357,987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0	3,200
	VIEW후원금	980,000	900,000		소모품비	3,580	3,500
	기타후원금	0	0		비품	0	0
	월보구독료	455,000	305,000		식비	226,690	233,46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508,520	527,220
	기타	0	0		퇴직연금	439,230	439,230
					예수금	452,580	452,58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서무비	55,00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122,735	125,375
	소계	9,805,000	10,257,500		소계	3,644,251	3,636,168
기타수입	일반이자	0	1,426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881,475	911,310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941,200	971,03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640,880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32,74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60,000
	예수금	476,470	476,470		소계	0	3,333,620
				기타	세금	62,500	0
					잡비	300	800
	소계	476,470	477,896		소계	62,800	80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26,768	400,00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3,880	0
					세계관기타	0	0
	소계	0	0		소계	30,648	40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40,000	14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88,000	380,00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33,38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37,178	105,848
	학술지심사비	0	70,000		학술지인쇄비	0	0
	학술지게재료	0	5,140,000		학술지발송비	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0	0
	학회기타수입	0	1,000,000		학회조교비	0	0
	소계	228,000	6,730,000		소계	70,558	105,848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1,006,880	959,71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959,710	895,865
	전월 이니시스입금	60,000	5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56,292	30,000
	소계	1,066,880	1,009,710		소계	1,016,002	925,865
당월 수입액		11,576,350	18,475,106	당월 지출액		11,020,459	14,628,336
전월 이월액		12,404,381	12,960,272	차월 이월액 (잔액)		12,960,272	16,807,042

* CMS,이니시스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5년 8월)

5천 공승건, 광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선택, 김성욱, 김성호,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성,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선, 신종철,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택, 지경순, 진성자,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용재, 고철웅, 구준호, 권경호,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화, 김규옥,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운,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선택, 김성규, 김성인, 김세령, 김세림,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름,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권, 김은덕, 김재만, 김재정, 김정일, 김정준, 김정호, 김종원, 김종철,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상욱, 남현우,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송현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진,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환,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재림, 윤태형, 이경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복, 이성근,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규, 이연희,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운택, 이원희,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일,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혜경,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한신영, 한화진, 허연, 허현, 홍구화, 황기철,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혜숙, **1만5천** 김신화, 김준원, **2만** 강석분,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옥,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안경성,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정훈, 조성근, 조은주, 채기현, 최현식, 최한우, **2만5천** 한운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김호수,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해경, 이근호,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윤, 오유리,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양승훈, 양정준,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6만** 문유아, 석종준, 송승철, 장근배, 정성일, 황수진, **7만** 서선정, **8만** 김현경, **10만** 김지현,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신영순, 윤완철, 이성현, 장수영, **12만** 김민철, 문소영, 박문식, 장민호, 최태연, **15만** 최현일,

계 6,695,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봉장로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나교회, 새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함남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삼일교회

계 3,250,000원

전체 9,945,000원

회원후원

(2025년 9월)

5천 공승건, 광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선택, 김성욱, 김성호,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성,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선, 신종철,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택, 지경순, 진성자,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대용,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용재, 고철웅, 구준호, 권경호,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화, 김규옥,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운,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선택, 김성규, 김성인, 김세령, 김세림,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름,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권, 김은덕, 김재만, 김재정, 김정일, 김정준, 김정호, 김종원, 김종철,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상욱, 남현우,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서선정,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송현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진,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환, 오민용, 오성호, 오유리,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재림, 윤태형, 이경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복, 이성근,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규, 이연희,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운택, 이원희,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일, 최수아,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혜경,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한신영, 한화진, 허연, 허현, 홍구화, 황기철,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혜숙, **1만5천** 김신화, 김준원, **2만** 강석분,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옥, 김태진, 박기모, 박해일, 박홍식, 백은석,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정훈, 조성근, 조은주, 채기현, 최현식, 최한우, **2만5천** 한운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빛과소금교회, 서성록, 손화철, 신해경, 안경성, 이근호, 이은실, 잡지협회,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윤, 우병훈, 이영란,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장덕수, 전희경, 정은애, **6만** 강연정, 강용란, 석종준, 송승철, 이창우,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신영순, 윤완철, 이성현, 장수영, **12만** 김민철, 김성원, 김홍빈, 박문식, 이새하, 최태연, **15만** 최현일, **22만** 고선옥,

계 6,847,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나교회, 새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함남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60만** 삼일교회,

계 3,550,000원

전체 10,397,5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셋별	홍콩대 심리학과 교수, 교육심리학, 오히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휴비츠 프로,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종교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셋별



김지원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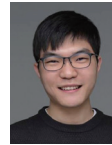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논문 투고 안내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호(30권 4호)
투고 마감일은 10월 31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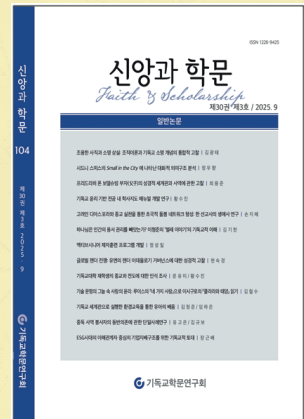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6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 마감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2025년 9월 22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투고 규정 8.(3)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각주 예시 확인

* 투고 규정 10.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 40만원), 전일제 대학원생 15만원으로 게재료 인하, 심사료 7만원 신설

* 연구윤리규정 제5장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지침추가

* 논문 심사 세칙 제2조 (5)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 호에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 세 안 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 반 문 의 gihakyeon@gmail.com(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문의 faithscholar@naver.com(투고, 심사) 02-3272-4967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